雲門

불기2553년 여름호 통권 제10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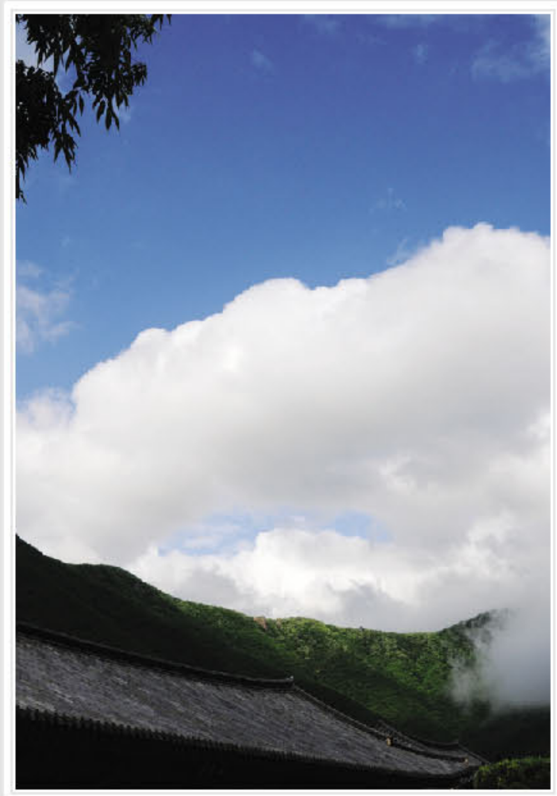
운문승가대학

불기 2553년 여름호 통권 제109호

雲門

목 차

2
호거산 운문사 3 四也亭 편집부
죽림헌 4 참회의 진정한 의미 명성 스님
교수논단 6 一然禪師와 雲門寺 Ⅰ 명성 스님
차례법문 10 습관적인 앎에서 벗어나기 유덕 스님
수행, 그 속에 깃든 행복 12 질서, 그 아름다운 조화 일진 스님
학인논단 14 『大乘起信論』의 心識轉變理論에 대한 考察 현산 스님
특별기고 18 대중생활을 위한 긍정 행동학의 활용 이상복
선배탐방 22 희망의 감로수 여진 스님
이 한 권의 책 24 살아있는 삶과 사상 그리고 교육 성원 스님
선사이야기 26 선지식을 만나다 현서 스님
불교와 천문학 28 별은 불법을 따른다 이시우
想 33 나무 그늘 아래서 아원 스님
끝없는 여정 34 일념으로 하면 돼 성호 스님
우리 절 이야기 38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알아지이다 편집부
답소 40 연꽃 필 때 들리는 소리 구활
길 위에서 42 자연 속에서 듣는 부처님의 무진법문 치도 스님
수행의 두레박 Ⅰ 44 외람되이 붓을 들어 덕현 스님
Ⅱ 46 지금, 법고 치러 갑니다! 능재 스님
운문논평 48 日日是好日 편집부
운문소식 50
등불 51 하늘바다 영담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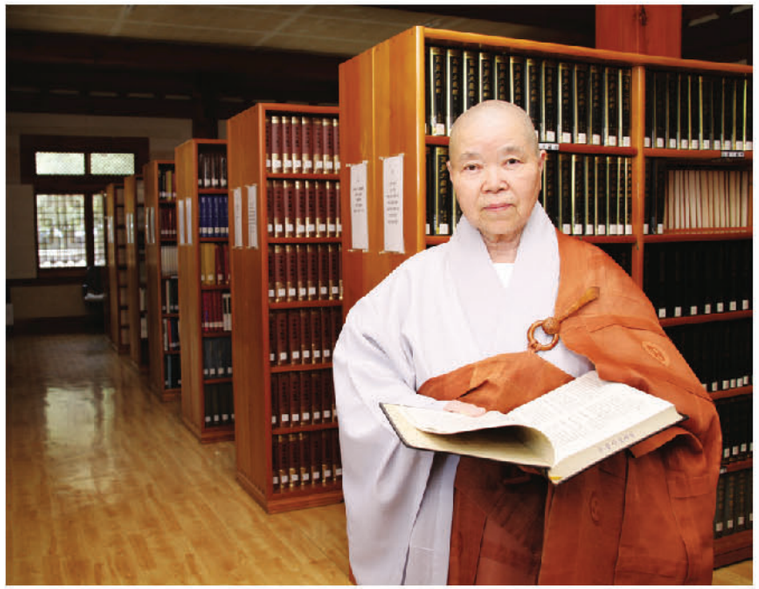


물은 스님의
푸른 눈과 같고
산은 부처님의
푸른 머리일세
달은 변치 않는
한마음이고
구름은 만권의
대장경일세

서산대사시 四也亭
효봉 이명옥 쓰다

참회의 진정한 의미

명 성 / 운문승가대학 학장



"죄는 자성이 없어 마음을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없어지면
죄 또한 없어진다. 죄가 없어지고 마음마저 사라져
둘 다 텅 비면 이것을 일컬어 진정한 참회라고 한다."

운문사에서는 날마다 새벽예불 후 모든 대중이 함께 백팔 참회를 합니다. 알고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마음과 몸과 입으로 지은 지난 잘못을 모두 참회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려는 뜻에서 우리는 날마다 참회문을 읽으며 몸을 낮추어 백팔 번의 절을 합니다. 깨끗하지 못한 그릇에 깨끗한 새 물을 담을 수 없듯이 지나간 잘못을 참회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공덕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회의 사전적 의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 그 중 '참懺'이란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아는 마음을, '회悔'란 남에게 부끄러운 줄 아는 마음을 말합니다. 유가 경전에서도 이처럼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을 '수오지심羞惡之心'이라고 하여 인륜의 근본으로 중요시하였습니다.

불교와 유교의 뿌리가 깊은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리는 인륜과 예의, 염치를 알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엔가 우리 사회에서 예의와 법도, 염치 같은 소중한 가치가 평가절하 되고 반인륜과 무례함, 뻔뻔스러움이 당당하게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은 물론이고 국가의 중요한 직책에 있었던 사람들조차 비리를 저질러도 법망만 피하면 그만이고 잘못을 하여도 교묘한 말로 변명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때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할 때조차 스스로 부끄러운 줄 모르고 단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만 걱정합니다. 그래서 만약 남들의 눈을 속일 수 있다면, 법의 규정을 피해갈 수 있다면 그들이 저지른 잘못과 부패는 잘못과 부패가 아닌 것이 됩니다. 어떤 이는 도덕적으로 잘못하였음을 인정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잘못이 없다고 강변하면서 오히려 억울함을 호소하고 여론의 동정을 사려고 합니다. 이러한 변명을 위해 법률적 지식을 동원하고 현란한 수사를 늘어놓으니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론의 비난과 법률의 징벌이 두려워서 죽음으로 도피한다 하여도 인과의 업보는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 오히려 어리석은 범부보다 못합니다.

천수경에는 진정한 참회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자성이 없어 마음을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없어지면 죄 또한 없어진다. 죄가 없어지고 마음마저 사라져 둘 다 텅 비면 이것을 일컬어 진정한 참회라고 한다."

학인스님 여러분, 날마다 백팔참회문을 외우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참회를 하기 바랍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더라도, 남이 잘못을 지적하지 않아도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아는 사람이 참된 출가자입니다.

一然禪師와 雲門寺 Ⅰ

명 성 / 운문승가대학 학장

목 차

1. 序 言
2. 雲門寺의 創建과 來歷
3. 一然스님의 生涯와 性品
4. 一然스님의 著作과 『三國遺事』
5. 一然스님과 雲門寺
6. 結 語

1. 序 言

一然스님(1206~1289)은 고려조 武臣亂이 후 對蒙抗爭期를 거쳐 元支配時期에 사셨던 분이다. 『三國遺事』의 저자로 널리 알려진 스님은 忠烈王3년(A.D.1277) 왕명에 의하여 雲門寺에 住持로 부임하여 4년여 동안 머물렀다.[1] 이 동안 스님은 『三國遺事』를 탈고하였으며[2] 九山禪門의 하나인 迦智山門의 門風을 드날려 고려 후기 불교계의 중심인물이 되었다.[3]

雲門寺와 一然스님의 관계는 스님께서 운문사 주지로 계셨을 뿐 아니라 스님의 示寂時 스님의 門人인 眞靜大禪師 法珍(淸珍)이 운문사 주지로 있으면서 스님의 行狀을 撰하여 行蹟碑를 운문사 東麓에 세웠던 것[4] 등에서 살펴볼 수 있다.

오늘날 雲門寺가 사미니 승가대학으로서 내실을 다져가고 있는 것도 一然스님의 敎學과 禪風의 음덕이 아닌가 생각한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운문사의 創建과 來歷 및 스님의 生涯와 性品 著書 등을 살펴보고, 스님과 운문사의 인연 등을 밝혀보고자 한다. 스님에 관계된 자료는 『三國遺事』와 麟角寺에 있는 碑文밖에 남아있지 않아 구체적인 생애 등을 살펴보기가 어려우나 『高麗史』, 『高僧傳』 등의 가능한 자료를 활용하여 대강이나마 밝히고자 한다.

2. 雲門寺의 創建과 來歷

雲門寺는 경상북도 청도군에서 동쪽으로 약 백 리 지점에 위치하고 운문면 소재지인 大川에서 남쪽 계곡을 따라 삼십 리 가량 되는 거리의 운문면 신원리 虎踞山(一名 雲門山)에 자리하고 있다. 중첩한 산줄기가 행인을 부르고 虎踞의 靈山이 길손을 반겨주는 곳에 一大伽藍이 있으니 바로 청도의 대표적인 古刹인 운문사이다.

신라 통일의 중추 역할을 한 花郎道가 창립될 무렵인 신라 진흥왕 18년(A.D. 557)에 한 神僧이 이곳에 들어와 금수동(지금의 북대암 옆에 그 유허가 있음)에 小庵을 짓고 삼 년 동안 수도한 결과 혜안이 열렸다. 그리하여 진흥왕 21년(A.D. 560)에 절을 짓기 시작하여 7년에 걸쳐 중앙에는 大鵲岬寺(현재의 운문사), 동쪽 九千步 지점에 嘉瑟岬寺(지금은 廢寺됨), 남쪽 七里되는 지점에 天門岬寺(지금은 廢寺됨), 서쪽 十里되는 곳에 大悲岬寺(현재의 대비사), 북쪽 八里되는 곳에 所寶岬寺(지금은 廢寺됨) 등의 五岬寺를 창건하였다.[5] 이때에 王이 勝地에 절이 창건되었다는 말을 듣고 願刹로 삼았다고 한다.

운문사는 창건된 이래 여러 차례 重創과 補修를 거듭하면서 오늘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

제1차 重創은 圓光國師가 하였다. 국사는 중국에서 돌아온 眞平王 22년(A.D. 600)에 경주 皇龍寺에 있다가 곧 운문사에 와서 重創을 하고 3년간 머물렀다. 이어 嘉瑟岬寺로 옮겨 있으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占察寶[6]를 설치하여 占察法會를 열었다. 또 花郎인 貴山과 箒項에게 世俗五戒를 전수하여 화랑정신의 근본으로 삼도록 했으며 隋나라의 王世儀가 왔을 때 皇龍寺에서 百座道場[7]을 열었는데 국사께서 맨 上座에 앉았다고 한다. 진평왕 30년(A.D. 608)에 고구려가 신라의 변방을 자주 침범하자 이를 방어하고자 圓光國師가 隋나라로부터 30만의 援軍을 지원받게 한 「乞師表」도 이곳 大鵲岬寺(雲門寺)에서 쓴 것으로 추측된다.

제2차 重創은 寶壤國師가 하였다. 국사는 西藏, 唐 등을 두루 다니면서 학문을 닦고 禪敎를 대성하여 귀국하였다. 국사가 당나라에서 돌아오던 중 西海 중간에 이르자 용왕이 그를 용궁으로 맞아들여 불경을 염송하게 하고 금빛가사를 주면서 龍子인 璃目에게 국사를 모시고 가게 하였다. 이에 용왕이 국사에게 부탁하여 말하기를 「지금은 삼국이 요란하여 아직 불법에 귀의하는 군주가 없지만 만일 내 아들과 함께 본국인 鵲岬에 들어가 절을 짓고 있으면 수 년이 못되어 반드시 불법을 보호하는 어진 임금이 나와 삼국을 평정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8]

그리하여 국사가 高麗 太祖 13년(A.D. 930)에 중국에서 돌아와 五岬寺를 중창하였다.[9]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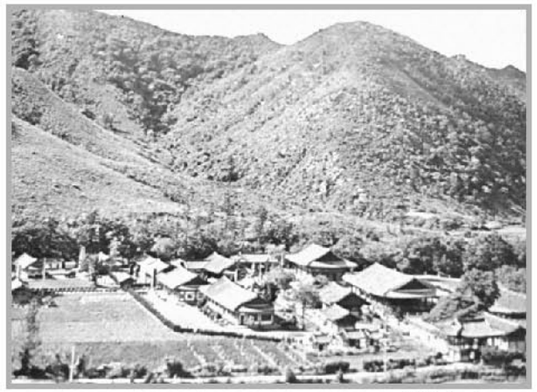
1) 「上卽祚四年丁丑 詔住 雲門寺 大闡玄風」 「高麗國義興華山 曹溪宗 麟角寺迦智山下 普覺國尊碑銘幷序」 (이하 인용시 一然碑銘이라 약칭함) 麟角寺誌七張下.
2) 『一然作品集』 解題, 형설출판사, 1977, 黃浿江.
3) 『普覺國尊一然에 대한 硏究』 韓國史硏究 26, 蔡尙植, 1979, pp.42~58.
4) 「門人雲門寺住持大禪師法珍 狀師之行, 聞于上 上令撰辭 臣學識荒淺 不足以光揚至德 故過延數年 請旣不已 命亦難忤 謹爲之序而銘之曰」 麟角寺誌九張下 蔣濟明編.
5) 『雲門寺事蹟』 〈朝鮮寺刹史料〉上 「五刹者~今寺之東九千步許有嘉瑟岬寺, 南七里許有天門岬寺 西十里許有大悲岬寺 北八里許有所寶岬寺, 中有大鵲岬寺 今雲門寺是也」 그런데 五岬寺의 명칭이 『三國遺事』 〈寶壤梨木〉條의 기록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여기서는 『雲門寺事蹟』에 따른다. 『삼국유사』에는 大悲岬寺 嘉瑟岬寺 대신에 小鵲岬寺, 嘉西岬寺로 되어 있다.
6) 占察寶 ~법회의 하나로서 「占察經」에 의한 법회이다. 신라 圓光法師가 占察寶를 만들고 이 법회를 처음으로 열었다. 『三國遺事』 卷4 圓光西學條에 언급.
7) 百座道場 ~(百高座)법회 이름. 사자좌를 백을 만들고 큰스님네를 모셔다 설법하는 큰 법회로, 신라 진평왕 35년(A.D. 613) 7월에 수나라 사신 王世儀가 왔을 때 皇龍寺에 百高座를 차리고 원광법사 등을 맞아들여 경법을 말한 것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이다.
8) 『三國遺事』 卷4 寶壤梨木條
9) 寶壤국사가 장차 慶寺를 復興시키려고 北嶽에 올라가 바라보니 뜰에 五層黃塔이 있었다. 내려와서 찾아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海龍이 鵲岬이라 한 말을 생각하고 그 곳을 찾아가 땅을 팠더니 과연 遺塼이 무수히 있어 이것을 모아 쌓아올려 塔을 이루니 남은 벽돌이 없었다. 이것으로서 前代의 절터임을 알 수 있었다. 重創을 마치고 이름을 鵲岬寺라 하였다. 前者의 大鵲岬과 後者의 鵲岬寺는 모두 고려 태조 20년(A.D. 937)에 雲門禪寺로 賜額하기 전 同寺의 異稱이다.

태조 20년(A.D. 937)에 태조는 삼국을 재통일한 후 보양국사가 五岬寺를 중창하였다는 말을 듣고 '雲門禪寺' 賜額과 田地五百結[10]을 내렸다고 한다.[11]

제3차 重創은 圓應국사가 고려 仁宗 7년(A.D. 1129)에 운문사 주지가 되어 허물어진 절을 다시 중창하고 法度를 세워 전국 제2의 禪刹이 되었다. 이에 仁宗은 田地 2백 結과 國奴婢 5백 명을 운문사에 내려 萬世香火토록 하였고, 국사의 공적을 추모하는 비를 세우게 하였다.[12] 또 三寶院 35간을 절 북쪽 3리 지점에 설치했으며 鹽城庫 13간을 절 서북 쪽 3리 밖에 세웠다. 大川院 2백 결은 三寶院에 속하게 하여 鹽城庫와 같이 香火 때의 여러 가지 물건을 갖추게 했으며 신수, 신원 3백 결은 香火 때 정제미로 비축케 하고, 노비 5백 명은 貢布를 걷어들여 국사의 향화를 받드는 이들의 衣財로 삼게 하였다.

고려 忠烈王 3년(A.D. 1277)에 一然大師가 주지로 주석하였다. 大師의 行蹟碑가 절 동쪽에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찾을 길이 없다. 일연대사에 관해서는 뒤에 서술하기로 한다.

제4차 重創은 임진왜란 뒤 肅宗 16년(A.D. 1690)에 雪松演初大師가 왜란 때 허물어진 절을 중창하여 옛모습을 되찾게 한 것이며, 제5차 重修는 純宗 1년(A.D. 1907) 雲岳大師가 하였으며 이어 肯坡大師가 제6차 補修를 하였다. 1913년 古田禪師가 제7차 보수를 하였고 다음 金先禪師가 제8차 修創을 하였다.



▲1970년대 운문사 모습

雲門寺에는 많은 암자와 異蹟들이 남아 있다.

邪離庵은 운문사 남쪽 10리 지점에 있으며 寶壤국사가 처음 창건했는데, 강화 보문사, 남해 보리암, 낙산 홍련암과 함께 한국의 四大 기도처로 널리 알려져 있다. 青神庵은 운문사 입구 산기슭에 자리하고 있으며 조선조 말에 崔玄化 和尙이 初創하였다. 內院庵은 운문사 동쪽 골짜기에 위치하는데 圓應국사가 초창하였고, 北台庵은 神僧이 小庵으로 초창한 뒤, 圓光, 寶壤, 圓應 국사가 중창하였다. 四窟로는 동쪽에 邪離窟, 서쪽에 火防窟, 남쪽에 鴛鴦窟, 북쪽에 墨防窟이 있으며, 四碑로는 圓應國師神道碑, 奴婢田畓碑, 一然禪師行蹟碑, 雲門禪寺賜額碑가 있었는데 이중 圓應國師神道碑만 현존하고 있다.

異蹟으로는 虎踞台, 若耶溪, 璃目沼 등이 있다. 虎踞台는 절 서쪽 산기슭에 있는데 바위의 모습이 범이 앉아 있는 형상을 하고 있어 붙여진 이름으로 지리학설상 운문산의 요지가 되고, 虎踞山의 山名 유래도 여기에 기인한다. 若耶溪는 五百殿 뒤에 있는데 날이 가물 때도 물이 줄지 않는다고 하며, 보물 208호로 지정된 青銅壺(一名 甘露樽)가 이곳에서 나왔다고 전해진다.[13] 璃目沼는 절 서남쪽에 있는 沼인데 寶壤 국사가 중국에서 돌아올 때 서해 용궁에서 데려온 용왕의 아들 璃目이 살던 곳이라 한다.

이 밖에도 운문사에는 많은 유물과 유적이 남아있어 찬란한 역사를 말해 주고 있다. 보물로 지정된 것만 해도 금당 앞 石燈(보물 193호), 青銅壺(보물 208호), 圓應國師碑(보물 316호), 石造如來坐像(보물 317호), 四天王石柱(보물 318호), 大雄寶殿(보물 835호)과 그 앞에 東西塔(보물 678호) 등이 있으며, 천연기념물 180호로 지정된 처진 소나무[盤松]가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내원암으로 가는 길목에 10여 기의 浮屠가 있으며 梵鐘樓의 梵鐘, 祖影堂에 봉안되어 있는 圓光國師를 비롯한 11명의 고승 대덕의 초상화 등 많은 유물이 전하고 있다.

현존 건물 가운데 大雄寶殿, 鵲鴨殿, 萬歲樓, 金堂, 五百殿, 冥府殿, 觀音殿 등은 圓應國師가 初創하였으나 消失되어 대부분 朝鮮朝 중엽과 日帝 때에 重創한 것이다. 應眞殿과 七星閣, 會星堂은 비구니 泰具스님이 창건하였고, 1977년 筆者가 주지로 부임한 이래 梵鐘 주조를 비롯하여 梵鐘樓, 說玄堂, 彩鏡堂, 淸風寮 등 30여 동을 新築 혹은 補修하였다.

佛敎敎團 淨化 직전에는 대처승이 잠시 살았는데 교단 정화 이후 1955년 비구니들이 들어와 比丘尼 金光스님이 초대 주지로 취임한 이후 2, 3대 兪守仁스님, 4대 妙典스님, 5대 泰具스님, 6대 慧雲스님, 7대 慧眼스님, 8~13대는 필자가 住持와 僧伽大學 學長을 겸직하였다. 그 이후 주지직은 14대 慧隱스님, 15대 興輪스님을 거쳐 현재는 眞晟스님이 주지를 살고 있다.

운문사의 특수성은 많은 農土를 保有하고 있으므로 學人들이 옛날 淸規의 '一日不作이면 一日不食한다'는 百丈스님의 生活信條를 본받아 생산하면서 수행하는 卽事而眞을 실천하고 있다. 삼국통일의 중추 역할을 한 화랑도의 수련장이던 이곳 호거산에 운문사가 있고 운문사에 우리나라 최대의 사미니 승가대학이 있게 된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1958년 사미니 전문강원이 개설된 이래 수많은 수도승을 배출하였고, 1988년부터는 승가대학으로 바뀌어 시대에 부응하는 교과과정과 교수진을 확보하여 승가대학의 명분에 걸맞도록 내실을 기하고 있다. 현재 210여 명의 스님들이 이곳에서 經學을 수학하고 戒律을 受持 奉行하면서 운문사를 거쳐 간 수많은 고승, 대덕들의 경지에 이르고자 정진하고 있다.

다음 호에 계속

10) 結 ~① 租稅를 계산하기 위한 논밭 면적의 단위. 약 일만把(把는 줌).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 光武 9년에는 5周尺平方으로 정하였음. 10줌을 한 뭇, 10뭇을 한 짐, 10짐을 한 총, 10총을 한 목이라 하였음(10把를 1束, 10束을 1負, 100負를 1結이라 하였음).

11) 『三國遺事』 卷4, 寶壤梨木條 「未幾太祖統一三國聞師至此創院而居, 乃合五岬田隶五百結 納寺以淸泰四年丁酉賜額曰雲門禪寺」

12) 이 碑는 보물 316호로 지정되어 운문사에서 보존하고 있는데 높이 5척, 폭 3척으로 尹彦頤가 짓고 僧 坦然이 글씨를 썼다. 日帝下에 파손이 되어 조각이 났으나 보수하여 보존하고 있다.

13) 青銅壺 일명 甘露樽은 壬申年에 印遜禪師가 꿈을 꾸어 얻었다고 전해진다. 印遜스님이 하루는 若耶溪 가에서 잠을 자는데 꿈에 한 승려가 한 곳을 가리키며 말하기를 '이곳에 보물이 있으니 네가 가지라'고 하였다. 스님이 꿈을 깬 후 그곳을 찾아보니 과연 그러한 물건이 있었는데 樽안에는 林椿의 『西河集』 한 帙이 있어 같이 절에 보관하였다. 뒤에 그의 후손되는 이가 願하므로 가져가게 했다고 한다.

습관적인 앎에서 벗어나기

유 덕 / 대교과

안녕하십니까. 대교반 유덕입니다.

대교반 스님들은 강원에 들어와서 흐른 4년의 시간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의 흐름은 느끼고 있습니까?

사진을 찍다보면 사진 한 장의 장면은 여러 조건들이 모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빛의 양과 각도, 조리개의 크기, 셔터의 속도, 그리고 선택한 모습들이 하나의 사진을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이 조건들이 모여 1초도 되지 않는 순간에 장면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순간순간 삶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다만 여러 조건에 의해 삶의 장면들이 나타나고 조건의 변화에 의해 이전 장면은 사라지면서 다음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이러한 무상의 흐름을 관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루 24시간 중에 2시간의 간경시간이 있습니다. 강원수업은 경을 보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연장선상에서 습관에 변화가 와야 할 것입니다. 이 변화는 대중생활을 무리 없이 잘해나가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펼쳐진 모든 장면들이 다만 여러 조건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고 그러므로 당연히 변하고 있다는 무상에 입각한 전체의 변화이어야 할 것입니다.

치문 1년이 거의 끝나갈 때쯤입니다. 토론수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 반의 한 스님이 묻습니다. "왜 불교는 고를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충분히 행복한데 왜 자꾸 고통을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통을 강요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여러분이라면 그 스님에게 어떻게 답해주시겠습니까?

그 시간 이후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고통일까? 나는 과연 고통을 제대로 느끼고 '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등의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저도 또한 대충 '아! 삶이 고통이지, 그래 괴로우니까…'라고,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고집멸도와 무상, 고, 무아로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각적이지 못한 습관적인 앎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내 안에 불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기 있고 '불교'는 배워야 할 저 높은 곳에 있는 그 무엇이라고 놓아두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으로 출가를 하였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중생을 괴로움에서 건져내고자 하는 원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가슴 깊이 느껴야 하는 것은 고통입니다. 착각하고 미세하지 못하여 지나치는 찰나 찰나의 무상함으로 인한 고와 그리고 무아에 이르기까지.

부처님은 고통을 말하기 위해서 고통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집착 없이 살고 있고 삶의 모습을 흐름이라는 무상으로, 있는 그대로 보고 있다면 굳이 고를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깨달음, 즉 지고의 행복을 말씀하시기 위해 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습관적인 앎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다음은 잡아함경 제8권 라훌라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에 계실 때 라훌라존자가 부처님께 나아가 머리를 조아리고 해탈의 법을 묻습니다. 그때 세존께서는 라훌라의 지혜가 아직 익지 않아 법을 감당할 수 없음을 관찰하시고 라훌라에게 "너는 다른 사람에게 5온을 가르친 적이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라훌라가 가르친 적이 없다고 대답하자 부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5온을 연설하라고 하십니다. 다음날 라훌라가 다른 사람에게 5온을 연설하고 부처님께 다시 청하자 이번에는 육근을 세 번째는 12연기를 연설하고 오라고 하십니다. 12연기를 설하고 온 라훌라의 마음에 해탈의 지혜가 아직 익지 않음을 보신 세존께서는 라훌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땅히 앞에서 연설한 모든 법에 대해 홀로 고요한 곳에서 정밀하게 사유하고 그 뜻을 관찰해야 한다." 그때 라훌라는 부처님의 분부를 받고 사유하여 '이 모든 법은 다 열반으로 나아가고 열반으로 흘러 모여 마침내 열반에 머무르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때 라훌라존자를 보신 세존께서는 지혜가 성숙함을 보시고 모든 법의 무상함을 설하십니다. 이 법을 듣고 수행한 라훌라는 마침내 아라한이 됩니다.

우리가 책에서 보거나 들어서 얻게 된 불교적 이해는 절름발이의 앎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하며, 또 스스로 세밀하게 사유하여야 의식의 변화를 불러오고 자연스럽게 습관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중 얼마나 무상, 고, 무아와 고집멸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까?

티벳의 소걀린포체가 말합니다.

당신이 무상함에 함축된 진리를 정말 이해해서 알아차렸습니까? 그것을 당신의 모든 생각, 호흡, 움직임과 합치시켜 당신의 삶이 바뀌었습니까?

당신 자신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시오. 자신과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매 순간 기억하고 있으며 그래서 모든 존재를 언제든지 자비심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죽음과 무상함을 통렬하고도 절박하게 이해해서 순간순간마다 깨달음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이 두 질문에 대해 당신이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다면 무상함을 제대로 이해한 거요.

습관적인 인식에서 벗어나는 연습은 그대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알고 있는 앎에 안주하지 않고 스스로에 대한 문제제기를 놓지 않는다면, 삶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아 무상한 흐름을 알아차릴 수 있는 정념(正念)의 습관이 생겨나는 어느 순간 부처님의 법이 우리에게 체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질서, 그 아름다운 조화

일 진 / 학감스님

계절의 변화가 있다는 것은 참 고마운 일입니다. 겨울이 오면 봄도 멀지 않았다고 하듯이, 엊그제 새해 새봄이라고 모두를 새로 시작했는데 어느덧 울창한 숲의 여름이 되었고 참으로 시원한 빗줄기가 속속까지 시원하게 적셔주었습니다.

계절은 늘 바뀌고 새롭게 맞이하는 여름이지만, 이 순간 여기서 맞이한 빛나는 숲의 계절이야말로 저의 생애를 통하여 처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나게 되는 신비의 숲입니다. 평생 산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수행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숲, 그 자체가 우리의 고향이고 수행처입니다. 숲은 그만그만한 나무와 풀들이 거의 같은 크기와 범위를 유지하며 빽빽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부터 같은 목적으로 같은 처소에서 화합하며 수행하는 곳을 총림(叢林) 또는 공덕총림(功德叢林)이라고 했습니다. 각기 다른 하나하나의 잎새들이 모여 거대한 숲을 이루고 있는 그 이치를 생각하면 각기 다른 우리들이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운문도량에 모여 대중생활을 하는 우리 수행자들에게 거대한 숲은 많은 것을 일깨워 주는 스승이기도 합니다.

저는 잠시 학인스님들과 함께 이렇게 울창하고 빛나는 숲을 통하여 반성도 하고 생각하며 중노릇하는 법을 배우고저 합니다. 숲에는 자연스런 절제와 조화가 있습니다. 우리 수행자의 생활에 특히 모두 함께하는 공동체의 대중생활에도 절제와 규범이 있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공동생활의 규범을 대중이 함께 드리는 조석예불과 108참회기도, 공양참례, 상강례, 대중울력 그 외의 대중생활의 청규를 자주적으로 지키는 일입니다. 기본적인 바탕의 질서 위에서 공부는 각자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제와 질서가 없이 어떻게 자유로움과 평화와 화합을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숲은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안개와 구름, 달빛과 햇살, 심지어 자신을 할퀴는 폭풍우까지도 다 너그럽게 받아들입니다. 이렇듯 넉넉하고 깊은 숲의 은덕 속에 평생을 살고 있으면서 나 자신은 과연 모든 것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넉넉하게 베풀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새삼스럽게 성찰해봅니다.

나 자신은 얼마만큼이나 숲의 나뭇잎처럼 선명하고 우뚝한 하나의 개체이면서도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 화엄경을 보면서 간간이 복습도 할 겸 다시 보는 『선가귀감』의 서산대사 법문이 새롭게 다가 왔습니다.

出家爲僧이 豈細事乎아 非求安逸也며 非求溫飽也며 非求名利也라 爲生死也며 爲斷煩惱也며 爲續佛慧命也며 爲出三界度衆生也니라.

"출가하여 중노릇 한다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인가. 편안하고 한가함을 구해서가 아니며 따뜻이 입고 배불리 먹으려고 한 것도 아니며 명예나 재산을 구해서도 아니다. 오로지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며 번뇌의 속박을 끊기 위해서이고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이으려는 것이며 삼계에 뛰어나서 중생을 건지려는 것이니라."

지금 여기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경책하는 『선가귀감』의 말씀을 숲의 거울을 통해서 비추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한 생을 사는 동안 수많은 봄 · 여름 · 가을 · 겨울을 맞이했고 맞이할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절실하게 그 계절이, 숲이 일깨워 주는 고마운 메시지에 귀 기울이며 내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것이 비단 숲이나 계절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날들에 대해서 그 순간 순간의 상황에 대해서 그 의미를 몇 번이나 알아차리고 주의 집중할 수 있었을까요? 돌아오는 봄과 여름, 그 여름의 숲을 우리는 더 이상 기약할 수 없습니다. 내일을 예측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 매 순간 지금 이 자리에서 내게 허락된 시간과 그 상황에 감사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현재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현재일 뿐인데 과거나 미래에 집착한다면 현재의 삶이 소멸해 버립니다. 내일을 걱정하고 불안해하며 과거에 집착한다면 오늘을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만을 온몸으로 마음껏 살고 있다면 내일을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정성껏 살 수 있다면 여기에는 삶과 죽음의 두려움도 없다고 했습니다.

한줄기 소나기가 지나간 숲엔 물안개가 자욱이 서려 있습니다. 안개에 묻힌 거대한 숲은 한층 더 평온하고 그윽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를 일깨워 줍니다.

거대한 숲의 질서와 조화는 아름다운 절제에서만 가능한 것이라고….

나무 숲, 숲 보살 마하살

『大乘起信論』의 心識轉變理論에 대한 考察

현 산 / 사교과

목 차

Ⅰ. 序 論
Ⅱ. 本 論
1. 『大乘起信論』의 基本構造
2. 心生滅門의 心識轉變 過程
1) 阿賴耶識과 染法緣起
2) 三 細
3) 六 麤
4) 五 意
3. 染淨熏習과 心識轉變
1) 染法熏習
2) 淨法熏習
Ⅲ. 結 論

Ⅰ. 序 論

본 稿는 一心眞如의 本性을 지니고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하여 번뇌와 미망에 물들게 되어〔惑〕 구체적인 생각과 행동 즉 業을 짓게 되고〔業〕, 그 결과로써 고통에 빠지게 되는가〔苦〕 하는 원리〔流轉門〕를 파악하고, 다시 어떻게 하면 자신의 現存을 자각하고 번뇌와 미망을 제거하여 인간 본유의 진여 자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還滅門〕를 해결하기 위해 『대승기신론』에 나타나는 "心識轉變"의 이론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本 論

1. 『大乘起信論』의 基本構造

『기신론』의 기본구조는 一心, 二門, 三大, 四信, 五行으로 요약될 수 있다. 즉 一心으로 표방되는 衆生心은 眞如自性으로서 心眞如門과 心生滅門의 양면을 가지는데 이것이 一心二門이다. 그리고 一心은 體大, 相大, 用大의 세 가지 性狀을 띠고 있다.

三大란 一心大乘法의 名義이니 체대는 일체법이 진여 평등하여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음을 이르며, 상대는 여래장이 무량한 性功德을 갖추고 있음을 말한다. 용대는 능히 일체 세간과 출세간에 착한 인과를 낳는다는 뜻이다.

四信이란 첫째는 '근본에 대한 믿음〔信根本〕'이다. 중생심인 일심진여가 모든 인간과 생명류 그리고 세계가 전개되고, 인간의 淸淨性과 染汚性을 있게 하는 근원적 존재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둘째는 '부처님에 대한 믿음〔信佛〕'이다. 부처님에게는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이 있으니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며 공양하고 공경하며 착한 일을 행하여 일체지를 구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법에 대한 믿음〔信法〕'이다. 부처님 가르침에는 광대한 이익이 있으니 항상 여러 바라밀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넷째는 '사문에 대한 믿음〔信僧〕'이다. 사문은 바르게 수행하여 자신과 남을 모두 이롭게 하니 항상 보살들과 가깝게 지내 올바른 행동을 배우기 때문이다.

五行은 施門, 戒門, 忍門, 進門, 止觀門의 다섯 門에 걸치는 수행을 말한다. 첫째, 施門은 보시바라밀인데, 이 布施行은 六度之首라 하여 모든 수행의 총수이며 貪心을 여의게 하고 慈悲와 喜捨心을 기를 뿐 아니라 육바라밀의 본질적 내용을 두루 갖추고 있다. 財施, 無畏施, 法施를 행할 때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無住相布施이다. 둘째, 戒門은 十惡 등을 삼가는 지계바라밀이다. 셋째, 忍門은 인욕바라밀인데, 八風[1]을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한다. 넷째, 進門은 정진바라밀을 행하는 것이다. 모든 착한 일에 있어서 게으르지 않고 마음이 확고부동하여 유약하지 않으며, 오랜 옛날부터 갖가지 몸과 마음으로 고행을 하더라도 아무런 이로움이 없는 줄 아는 것이다. 따라서 마땅히 모든 공덕을 부지런히 닦아 자기 자신과 남을 이롭게 하여 온갖 괴로움을 떠나야 한다. 또한 정성껏 참회하며 가르침을 청해 환희심을 얻고 다시 보리에 쉼 없이 회향하여 모든 장애에서 벗어나 착한 바탕〔善根〕을 증장하는 것이다. 다섯째, 止觀門은 선정과 반야바라밀을 행하는 것이다. 이른바 止라는 것은 모든 경계상을 멈추는 것으로 사마타의 뜻을 수순하는 것이고, 觀이란 생멸인연상을 분별하는 것으로 위파사나의 뜻에 수순하는 것이다. 止觀은 內意識의 心猿意馬를 制伏시키는 공부이다. 상념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고요히 대상을 관조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2. 心生滅門의 心識轉變 過程

심생멸문은 아홉 가지 모습으로 변모하면서 일체중생에게 生死苦를 겪게 하는 것이다. 이 유전의 근본원인은 무명에 의한 심식의 전변에 있으므로 무명으로 말미암아 심식이 전변되는 모습과 과정을 『대승기신론』에서는 染法緣起라 한다.

1) 阿賴耶識과 染法緣起

『기신론』 해석분 顯示正義章에서는 "심생멸이란 것은 여래장에 의지하므로 생멸심이 있게 되나니 소위 불생불멸이 생멸과 더불어 화합하여 하나도 아니고 다르지도 않다는 것이다. 이를 이름하여 아뢰야식이라 한다."고 하였다. 아뢰야식은 무명의 충동에 의하여 여러 가지 相을 낳고 변모하는데 그 전변의 모습은 무명에 의하고 생멸심을 바탕하므로 染法緣起라 한다. 이 생멸심은 三細와 六麤를 낳는다. 삼세육추가 유전되면 우리가 사는 중생세간이 완성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아뢰야식의 전변이며 이는 곧 여래장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삼세육추 그대로 일심법계이다.

아뢰야식에서 말라식, 의식이 전변, 생성되어 현업과 과보까지 받게 되는 과정을 細와 麤로 정밀하게 구분함은 전변과정이 隱微하여 갈수록 거칠어짐을 표하는 동시에, 이 染汚性을 없애어 본원인 깨달음의 상태로 돌아가고자 할 때, 잘 드러나 있고 거칠어 비교적 끊기 쉬운 것〔六麤〕부터 먼저 끊어 없애고, 잘 드러나지 않으면서 끊어 없애기 어려운 微細識〔三細〕으로 거슬러 정화시켜 나가야 함을 나타낸다.

2) 三 細

깨닫지 못함에 의해 세 가지 번뇌가 발생하는데, 세 가지 번뇌는 '근본적으로 깨닫지 못함'과 서로 응하여 떨어지지 않는다.

(1) 無明業相 : 깨닫지 못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業이라 이름 한다. 깨달으면 곧 생각이 움직이지 않지만 분별에 흐르면 고통이 뒤따른다. 왜냐하면 결과가 원인을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 (2) 能見相 : 능견상은 곧 轉相으로써 인식주체를 가리킨다. 생각의 움직임 때문에 사람은 사물을 보고서 분별하는 것이다. 그러나 생각이 흐르지 않으면 보는 주체가 없게 된다. (3) 境界相 : 경계상이란 곧 現相이니 인식대상을 가리킨다. 인식주체가 사물을 분별하는 것에 의해 경계가 망령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분별하지 않으면 경계 또한 사라질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능견상이 먼저이고 경계상이 뒤라는 것이다. 즉 경계가 있으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있으니까 보인다〔경계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3) 六 麤

覺明에 의하여 不覺心이 일어나 動轉差別하여 三細의 轉變이 있게 되어 경계가 나타나게 되었다. 마음의 영묘한 인지작용은 망령되이 나타난 경계를 보고 이를 인식 추리하고 비교 억측하여 판단하는 등의 심식작용을 일으키게 되며, 나아가 행동을 짓고 그 결과로서 생로병사 등 갖가지 苦를 초래하게 된다. 이를 육추라고 한다.

(1) 智相 : 경계에 의지해 마음에 분별이 일어

1) 利, 衰, 毁, 譽, 稱, 譏, 苦, 樂의 8종. 이것은 세상에서 사랑하거나 미워하는 바로써 능히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므로 八風이라 한다.

나 애착하기도 하고 증오하기도 하는 것이다. (2) 相續相 : 지상에 의해 苦樂이 생겨나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발생해 끊어지지 않는 것이다. 마음에 들면 즐겁다 하고 마음에 맞지 않으면 괴롭다 한다. (3) 執取相 : 인연에 따라 생긴 경계가 일으키는 괴로움과 기쁨이 허망한 줄 몰라 깊이 집착하여 我執과 我欲이 깊어가는 상태이다. (4) 計名字相 : 분별하고 집착하게 된 다음에는 물건의 모양과 성질을 파악하여 이름 지어 분별을 더욱 심화시킨다. 분별의 편의를 위하여 만들어 낸 언어들이 오히려 인간의 심식을 속박하고 번뇌에 물들게 하여 더욱 昧하게 한다는 것이 계명자상의 단계이다. 이 計名字相과 相續相, 執取相을 生起識이라 한다. (5) 起業相 : 계명자상에 의해 이름을 따라 집착함으로써 온갖 업을 짓게 되니, 구체적인 행동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百千煩惱에 따라 善惡의 業을 짓는다. (6) 業繫苦相 : 기업상에 의해 과보를 받아 자유자재하지 못하는 것이다. 스스로 지은 선악의 업에 의해 괴로움과 기쁨 등의 과보를 받아 삼계를 윤회하고 생사에 끌려 다님으로써 얽매이게 되므로 '업계고'라 한다. 業과 苦는 因果同時이다.

이상 삼세육추의 아홉 가지 모습[九相]은 惑, 業, 苦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生起識이 여러 단계에 걸쳐 있다. 따라서 心識에 한정하여 단계별 · 성질별로 재분류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五意인 것이다.

4) 五意

삼세육추는 인식능력의 측면에서 다시 다섯 가지의 마음으로 나누어진다. 이를 五意라고 하는데 무명업상 · 전상 · 현상 · 지상 · 상속상 등이 각각 業識 · 轉識 · 現識 · 智識 · 相續識이 된다. 오의는 細로부터 麤에 이르기까지 차례로 의지하여 뜻이 생기고 발전하는 까닭으로 意라 한다.

(1) 業識 : 무명으로 인해 깨닫지 못한 허망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다. 최초로 움직이는 생각[生相]이 意이다. (2) 轉識 : 참된 지혜를 뒤흔들어 주체가 이리저리 요동하는 마음으로 대상을 보고 허망한 견해를 내는 것이다. 업식이 한번 굴러 만들어진 식이므로 전식이라 한다. (3) 現識 : 모든 경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비유컨대 밝은 거울이 색과 모양을 비추듯 현식 또한 五塵[2]에 따라 상대가 나타나면 곧 드러나 조금도 어긋나지 않는다. 언제든지 작용하여 항상 그 근원을 이루기 때문이다. (4) 智識 : 오염된 법과 청정한 법을 끊임없이 분별하는 것이다. (5) 相續識 : 생각과 생각이 서로 이어져 끊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지나간 오랜 세월 동안 선과 악의 업을 지어 쌓았기 때문이며, 또한 현재와 미래의 괴로움과 기쁨 등 과보가 어긋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속식은 사람으로 하여금 과거와 현재에 겪은 일을 문득문득 분별하게 하며 미래에 다가올 일 또한 깨닫지 못하는 허망한 망상으로 제멋대로 헤아리게 한다.

이상 업식에서부터 전식 · 현식 · 지식을 거쳐 상속식까지 전변이 이루어져서 만법을 분별하고 심신의 업을 일으키는 단계까지의 과정과 의미를 살펴보았다. 심생멸문인 아뢰야식의 不覺義에서 不覺心이 움직여 업식이 되고, 업식이 전하여 전식을 이루고, 전식이 현식을 가져오고, 현식이 나타났으므로 지식이 생기고, 지식은 의식을 가동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망심 · 망념의 소치로서 마음의 일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이 오의의 유전을 심식전변이라고 칭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업식이 전변하여 전식과 현식 등을 이루었지만 업식은 그대로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식과 상속식도 업식 · 전식 · 현식의 바탕 위에 활동하는 것이다.

3. 染淨熏習과 心識轉變

심식전변은 훈습과 깊은 관련이 많다. 不覺心動하여 일어난 마음[心識]들은 서로가 서로를 훈습하고 훈습되어 여러 마음으로 전변되는 것이다. 기신론에서도 "중생이 마음에 의지하여 의와 의식이 전변한다."고 하며 이것에 의해 생멸인연이 일어난다고 한다. 기신론에서 전개하는 염법훈습과 정법훈습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染法熏習

삼세육추의 九相轉變을 가능케 하는 원리로 기신론에서 세우는 것이 4종의 染淨熏習이다. 첫째는 淨法이니 곧 진여이고, 둘째는 染因이니 곧 무명이요, 셋째는 妄心이니 업식이라 이름하며, 넷째는 妄境界이니 이른바 육진이다. 여기서 진여훈습은 정법훈습이요, 나머지는 염법훈습이다. 염법훈습을 살펴보면, 무명이 진여를 훈습하여 망심을 일으키는 것을 무명훈습이라 하며, 이 망심이 다시 무명을 훈습하는데 진여의 법을 요달하지 못하고 不覺念起하여 망경계가 나타남을 망심훈습이라 한다. 또한 망심훈습의 결과로 아뢰야식에서 망경계까지 전변되어 나타나는데 이 망경계가 다시 망심을 훈습하여 생각에 집착을 일으키게 하여 갖가지 업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망경계훈습이다.

2) 淨法熏習

정법훈습이란 진여가 중심이 되어 먼저 무명을 훈습하여 망심으로 하여금 생사의 괴로움을 싫어하고 열반을 구하게 하는 것이다. 또 자기의 본성이 불생불멸하는 진여임을 알아 모든 경계는 다 마음이 망령되이 움직임으로 생긴 바임을 굳게 믿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편으로 망념과 취착심을 멀리 여의게 하고 나아가 오래 오래 훈습하여 경계도 사라지며 심상이 다 없어져 열반을 얻고 自然業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Ⅲ. 結 論

『大乘起信論』은 세계와 인간의 본체와 현상을 一心二門 특히 心生滅門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대승불교의 유력한 이론이다. 또한 心識轉變論은 세계와 인간이라는 개념과 양상이 분리되기 이전의 人間本性인 一心眞如에 根本無明이 작용함으로써 根本不覺이 일어나고 이 근본불각과 진여가 상호 영향을 끼쳐가면서 不覺의 마음이 자라나 드디어 나와 남, 내 것과 남의 것,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게 되고 또 나와 내 것과 좋은 것에 대하여 집착하고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되어 마침내 탐욕과 불만과 질투와 투쟁이 가득한 불건강한 삶과 인간사회를 초래하게 되는 과정을 제시한다. 따라서 인간의 내적 갈등과 불만, 상호질서와 투쟁으로부터 벗어나며 본래의 순수성을 회복하여 우주 법계와 더불어 전 인류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도덕적이고 지혜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심식전변의 과정을 거슬러 정화시켜 나가면 되는 것이다. 발심과 수행에 의하여 染汚轉變된 의식과 무의식을 治斷 淨化해 나가면 그 공부성과에 따라 覺體가 서서히 드러나게 되고 마침내 구경각에 이르면 진여의 일심법계가 온전히 드러난다.

참고 문헌

- 마명, 진제 역, 『대승기신론』 1권, 『대정신수대장경』 권32.
- 마명, 실차난타 역, 『대승기신론』 2권, 『대정신수대장경』 권32.
- 법장, 『대승기신론의기』, 『대정신수대장경』 권44.
- 혜원, 『대승기신론의소』, 『대정신수대장경』 권44.
- 한글대장경, 『대승기신론 소별기 외』, 동국역경원, 1996.
- 혜남, 『기신론 사기』, 해인사 승가대학, 불기 2535.
- 감산지음, 오진탁 옮김, 『감산의 기신론 풀이』, 서광사, 1992.
- 은정희, 『원효의 대승기신론 소 · 별기』, 일지사, 1991.
- 박태원, 『대승기신론 사상연구』, 민족사, 1994.
- 서광스님, 『현대심리학으로 풀어본 대승기신론』, 불광출판부, 2004.
- 이홍우, 『대승기신론통석』, 김영사, 2006.
- 윤용섭, 「원효의 심식전변이론과 그 교육적 의의」, 경북대학교교육학박사학위논문, 2006.

2) 六塵 가운데 意를 제외한 다섯 가지를 가리킨다. 의가 나머지 다섯 가지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대중생활을 위한 긍정 행동학의 활용

이 상 복 / 대구대 유아특수교육과 교수

본 특별기고에서 제안된 주제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대중생활이라는 주제어는 운문사 학인스님들 편에서 생각할 수 있는 중요 단어이다. 한편 긍정 행동학이란 주제어는 필자 자신의 평생에 걸친 소위 전공 단어이다. 본고에서는 위에 제시된 두 개의 주제어들을 서로 얽어매는 활용적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서술하고자 한다. 단 여기에서 먼저 밝혀 둘 것은 필자는 불교에 대한 심오한 지식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108배를 어떤 자세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초가 충실한 불자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에 필자는 불교가 필자가 천주교 신자라는 입장을 떠나게 할 만큼 아주 매력적인 점을 지니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고, 우선 거기에 심취해 있는 상태다. 이유는 단 한 가지다. 우연히 읽게 된 글의 내용에서 "내가 곧 부처요, 당신도 곧 부처다."라는 경구가 나를 아주 우쭐하게 해 주기 때문이다. 이 내용은 지금까지 내가 경험하지 않았던 세상을 열어주는 대단한 관문이었다. 그리고 따져보면 볼수록 필자가 학부나 대학원 강의 그리고 때때로의 특강에서 모든 이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장애가 있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평등권 보장", "현재의 현상 그대로 수용하기", "어떤 장애 조건도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등등의 전공 관련 주제들을 한데 묶어주는 현실적 대안임을 알게 된 것이다.

물론 "너는 알라신의 정신을 지니고 있다, 너는 하느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은유적 표현은 흔히 들어볼 수 있다. 그러나 필자에게 있어 이러한 내용은 불교에서 지향하는 생활상의 목표적 접근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또 애매모호하여 도무지 현실에 미치지 못한다. 더구나 불교에서 "당신이 곧 부처요!" 하는 것과 똑같은 맥락에서 "당신이 곧 하느님이요!" 하거나, "당신이 곧 알라신이요!" 하는 예는 있을 수 없다. 평범한 인간은 예를 들어 하느님 혹은 알라신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라는 존재는 다만 신 앞에서 끝없이 미약하여 잘못하기만 하면 심한 벌을 받아야 한다는 이중적 잣대에 시달려야 한다. 이와 달리 불교에서 말하는 "당신이 곧 부처요!" 하는 것은 대중생활을 가치 있게 유지할 수 있는 평등심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어떤 상태, 어떤 경우의 누구라도 부처의 존재로 존중받을 수 있다면 이는 살맛 나는 대중생활을 보장해 줄 것이다. 수없이 많은 행동 양식 중에서 누구의 행동이든 존중받을 수 있다는 단 한마디가 곧, "당신이 부처요!" 하는 내용에 해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얼마나 매력적인가!

"당신이 곧 부처요!" 하는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내 앞에 있는 상대방을 향하여 "당신도 부처입니다."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생각해보면 가슴이 벅차오르는 기쁨이 거기에 있는 듯이 느낄 때가 있다. 즉, 누가 이 세상 나의 눈 앞에 존재하는 부처를 함부로 대할 수 있으며, 누가 부처인 나 자신에게 함부로 하는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부처이면 당신도 곧 부처이고, 당신이 부처이므로 나 또한 부처가 된다. 고로 우리 모두는 어떤 경우에도 긍정적으로 행동하고 이해하게 되는 하나의 대중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명쾌한 논리가 성립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물론 세상은 보다 복잡하고 살기가 상상을 초월하도록 힘들다. 실직한 아빠를 둔 식구들은 생활이 힘들 것이고, 자녀가 태어나 12개월이 되면 엄마 아빠를 말해야 하는데, 아예 말문을 닫고 미소조차 없는 자폐성 영아를 둔 부모들은 가슴이 찢어지는 심리적 고통을 감내할 것이다. 학인스님들은 힘들지 않게 살고 있는가 하면, 반드시 그렇지도 않을 것이다. 일반 대학생활과는 달리 승가대학의 1학년 치문반은 고개를 빳빳이 들기도 힘들 때가 혼히 있을 것이다. 상급반 학인스님들에 대한 예의와 전통

에 따른 몸가짐을 제대로 하자면 세상에서 큰소리 뻥뻥 치며 살던 습관들 다 버려도 오만하다 말들을 테니 억울해서 대중생활 하기가 어느 때는 죽기만큼 힘들 것이다.

삶이 이토록 우리를 어렵게 하고 이것을 겪어내는 것이 곧 세상 이치라면 이쯤에서 대중생활 속에서 긍정 행동학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긍정 행동학은 가장 최근에 특히 자폐와 같은 발달상 행동문제를 보이는 아동들을 위한 긍정적 행동지도와 결부되어 있다. 긍정적 행동지도는 우선 어떤 개인이 지닌 현재의 상태가 반드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수용되고 발전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전제로 한다. 부정적 언어로 혹은 체벌과 같은 부정적 방법으로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는 긍정적 행동학에서 벗어난 행동지도가 된다. 긍정적 행동학의 기초는 지구상의 약 60억 인구가 지닌 특성적 행동 양식을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 없이 긍정적으로 수용한다는데 있다. 또한 이 60억 인구 각각의 행동 양식은 각자의 개인적 마음을 표현하는 각각의 특성을 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준다. 따라서 어떤 조건, 어떤 행동 양식인가의 따짐 없이 모든 행동은 그 개인의 입장에서 존중되어져야 한다. 이러한 존중성이 인간의 평등성을 보장해 주는 하나의 가치적 기준이 되는 것이 곧 긍정 행동학이다.

우선 긍정 행동학이 지향하는 바를 만 5세 유아의 사회적 행동능력에 대한 평가기준을 두고 예를 들어 보자. 아무도 도움을 줄 수 없는 배고픈 상황에서 만 5세 일반 유아에게 라면 한 개가 주어져 있다면, 명석한 유아는 이 라면을 끓여 먹는 행동을 한다. 반면 인지(생각하는 능력)발달이 보통인 일반적 유아는 생라면을 그대로 먹는다. 한편 인지발달 자체가 지체된 현상을 지닌 "발달지체 유아"의 경우에는 라면을 뜯어서 먹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배가 고프다는 표현으로 우는 행동만 하게 된다. 이때 라면을 끓여 먹는 행동은 명석한 유아로 칭찬을 받고, 생라면을 먹거나, 울고 있는 행동이 비난받게 된다면 이는 긍정 행동학의 원리에 어긋나게 된다. 즉, 명석한 유아의 행동이나, 배가 고파 울고 있는 발달지체 유아의 행동이나 똑같이 유아의 인지 발달에 따른 행동 특성에 해당할 뿐 비난을 받아야 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명석한 두뇌의 유아이든, 발달지체 유아이든 모두 "부처"에 해당함으로 어떤 차별도 있을 수 없다. 다만 발달지체 유아에게 우는 행동 대신 라면을 먹을 수 있도록 긍정적 행동지도를 제공해 주는 일이 남아 있을 뿐이다.

따져 보면 상대방을 향하여 "당신이 곧 부처입니다" 하는 수용적 태도와 평등심 자체가 위에서 예를 든 긍정적 행동학 그 자체임을 알 수 있다. 한마디로 누구이든 의도적으로 타인을 해치거나 해롭게 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어떤 행동 양식도 수용될 수 있다는 긍정 행동학의 원칙이 대중생활에서 일반화될 때 사는 일이 보다 잘 풀리게 될 것이다.

실제 문제행동을 지닌 아동들 주변에서 발생하는 하나의 예를 더 들어 보자. 대구시내 D유치원 통합학급에서의 일이다. 통합학급이란 일반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행동문제, 언어지체, 인지적 지체, 신체적, 혹은 감각적 장애 현상을 지닌 유아 혹은 아동들이 일반학급에서 교육받는 경우를 말하고 흔히 통합교육이라는 말로 바꾸어 말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언어, 행동, 신체, 사회성 등의 각 발달 영역에서 어느 한 가지라도 또래 연령과 달리 특징적 행동을 보이는 아동 1명당 전문 특수교사 1명이 함께 배치되어야 바른 통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통합교육은 특별히 개별 지도를 요하는 발달지체 유아의 경우에도 개별 유아를 위한 특수교사의 배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통합학급에서의 행동문제 발생률이 증가될 수 있다. D유치원의 경우에도 비슷한 경우이다. 즉, 심각한 행동장애 군에 속하는 자폐증 유아가 특수교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일반 수업의 스트레스가 점증되자 수업 시간 중 갑자기 옆에 앉아 있던 짝꿍의 손목을 이빨 자국이 나도록 물고 소리 지르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당연히 담임교사는 당황하여 문제가 된 자폐유아를 야단치려 하자, 물린 상처를 지닌 유아가 선생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선생님, 저는 괜찮아요. 제 짝꿍을 야단치지 마세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제 짝꿍은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나를 물었어요. 일부러 그런 것 아니에요." 그 말을 하는 6세 유치원생은 물린 손목이 아파서 눈물이 저절로 뚝뚝 떨어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짝꿍을 선생님께 이해시키고 있었다.

이 광경은 그 6세 유치원생이 "제 짝궁도 부처예요. 다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는 부처님이에요. 이해하고 받아 주세요."라고 말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짝꿍의 발달상 문제행동까지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해 주는 긍정 행동학을 실천한 작은 부처님이 된 것이다.

부끄럽게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사회생활이나 대중생활이 위에 예를 든 유치원생 부처의 모습과 정반대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매 순간 경험하는 것이 사실이다. 작은 예로써, 택시를 타고 와서 내릴 때 "고맙습니다" 말하는 것에 인색하다.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내가 편리를 본 서비스에 대하여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님에도 "돈으로 해결한다"는 계산된 삶에만 익숙하다. 그러다 보면 단돈 100원에도 싸움을 해야 하고,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싸움꺼리가 되는 삭막한 세상을 만들게 된다.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수용해 주는 것이 습관이 되면 어떤 경우에도 위의 유치원생 부처님처럼 다른 사람의 특이한 문제행동도 이해할 줄 아는 넉넉한 사람이 된다. 이 넉넉함은 곧 매 시간의 행복이 될 것이다. 필자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예외 없는 부처라는 사실에 따라 긍정적 행동학을 사회생활에 활용할 줄 알았으면 한다. 특히 운문사의 귀하고 귀한 학인스님들이 장애가 있는 우리 아이들의 모든 행동을 좋고 나쁘다는 차별심 없이 각각의 아동이 지닌 현재의 능력으로 받아주는 "세상 길잡이 부처님들"이 되어 우리 곁에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상복 님은 세계 행동 분석학회 한국 의장, 미국 럭거스 대학에서 유아행동장애로 박사 학위를 취득, 『발달장애 평가와 진단』 외 20여 권의 저서 및 40여 편의 행동장애 관련 논문을 국내외에 발표하였다.

희망의 감로수

- 제17회 동문 행법스님 -

여 진 / 사교과

▲선덕사 어린이 법당

걸망 하나 짊어지고 새로운 만남에 대한 설레임을 안고 길을 나섰다. 싱그러운 햇살이 얼굴을 비추는가 싶더니 바람이 살포시 다가와 앉는다. 햇살도 바람도 다 자연의 이치대로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을, 그 이치를 있는 그대로 느끼고 받아들여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그 순간 나와 자연이 다를 바가 있을까?

전라남도 광주에 있는 선덕사에 들어서자 앞으로는 광주 시가지가 넓게 펼쳐져 한눈에 들어오고, 뒤편으로는 소나무가 어우러진 숲이 절을 감싸 안고 있다. 푸른 자연의 경관은 그 자체로 빛나고 잘 정돈된 도량의 깨끗함은 주지 스님의 카리스마와 꼭 닮은 느낌이 든다. '행법 스님! 무서운 분이야.' 라는 사전 정보(?)에 약간 긴장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직접 뵙고 나니 그것은 스님의 원력과 정진력을 일컫는 말임을 알 수 있었다. 선과 교를 두루 겸비하여 부처님의 지혜를 바탕으로 정법수행을 하면서도 어린이포교에 큰 원력을 세우고 몸소 실천하는 분이다.

"안녕하세요?" 5~6살 아이들이 고사리 손을 모아 배꼽에 대고 꾸~벅 인사를 한다. 개량한복을 단정히 입고 건네는 아이들의 밝은 미소에 먼 여정의 피로가 말끔히 날아가는 듯하다.

"여기 유치원 아이들은 숲이 가까워서 나무나 꽃, 곤충들을 보고 새소리 들으며 산책도 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하겠어요. 이런 자연친화적인 좋은 환경을 만나기가 어려운데요."

여느 유치원과는 달리 아이들이 자연과 함께 숨 쉬며 놀 수 있는 환경이 남달라 여쭈었다.

"그렇지요. 자연을 관광자원이나 경제적 개발대상쯤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아이들의 몫을 잠시 빌려 쓰는 것일 뿐이니까 환경을 보존해야 하는 건 아주 당연한 의무죠." 생명, 생태, 환경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하신다. 자연을 닮은 아이들에 대한 사랑만큼이나 그 아이들의 보금자리인 생태환경을 지키기 위한 스님의 자비로운 마음이 느껴진다.

처음 이곳에 들어서면서부터 지금까지 도량 곳곳에서 묻어나는 햇살담은 아이들의 미소와 웃음소리 …. 어떠한 계기로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하겠다는 원력을 세우게 되셨는지 궁금했다.

"예전에 불교신문을 보고 인연이 돼서 다니게 된 절이 있었어요. 하루는 법회를 시작해서 반야심경을 읽는데 그 독경하는 소리에 가슴이 찡한 것이, 편안한 안식처를 찾은 것처럼 좋더라구요. 그런데 마침 그 절에는 어린이 법회가 있었는데 교사가 없어서 애를 먹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 절 스님께 찾아가서 간청했죠. 어린이만 모아주면 제가 해보겠노라고. 그게 인연이 되었지요."

그렇게 시작된 어린이 포교의 원력, 스님은 어린이 포교는 과수원 농사와 같다고 말씀하신다. 먼저 묘목을 심고 물과 거름을 주며 보살펴 키워야 좋은 열매를 맺듯이 어린이 포교야말로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처님 일이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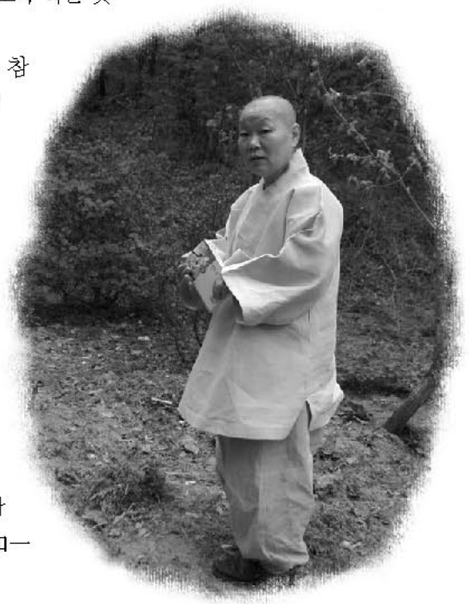
황토벽으로 단장한 어린이 법당 안에는 낮은 수미단 위에 아기 부처님이 아이들과 눈을 맞추며 미소 짓고 계신다. 이곳이야말로 부처님과 아이들이 함께 하는 눈높이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구나 싶어서 나도 덩달아 몸을 낮추어 본다. 아이들은 부처님을 보며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 걸까?

"정기적으로 어린이 법회를 열어서 노래 법문 등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죠. 특히 아미타불 명상시간에는 아이들이 불교를 받아들이는 느낌이 달라요, 또 생명이나 환경이나 어울림과 같은 내용으로 동화구현도 하는데 어른에게 10년 들려주는 것보다 아이들한테 한 학기 교육하는 것이 훨씬 흡수도가 높아요."

어릴 때 할머니, 엄마 손 잡고 절에 가면 왠지 편안했던 정서가 지금까지 법당으로 오게 하는 것처럼 부처님의 마음, 그 편안함이 아이들 가슴 속에 고향처럼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신다.

"스님들도 강원 졸업하면 유아 교육도 하고 사회 복지도 하면 참 좋겠어요. 스님들이 전문직에 종사해봐야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폭 넓은 포교가 이루어지고 제대로 공부가 되어가는 것이지, 공부만 한다고 노다지 앉아 있을 수만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스님은 우리에게 어린이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거쳐서 실전에서 보다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폭 넓은 포교 활동을 해 주기를 당부하신다.



매일 뒷동산에 올라 텃밭을 가꾸면서 이 숲의 생명력을 아이들이 배울 수 있기를 발원하신다는 스님! 평생을 확고부동한 수행과 어린이 포교에 혼신을 다해 이 길을 걸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먼 미래를 향해 더 큰 서원을 세우고 계신다. 스님의 서원이 아이들의 꿈을 키워 줄 희망의 감로수는 아닐까? 우리들에게 참 수행의 의미를 일깨워 주신 스님을 통해 '천사불여일행(千思不如一行)' 의 정신을 되새겨 본다.

살아있는 삶과 사상 그리고 교육

- 『Zen in the Art of Archery』를 읽고 -

성 원 / 운문사 보현율원 율원생 스님

요즈음에는 인터넷상에서도 세계를 넘나들면서까지 개인의 주장에 확신을 줄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시대인 만큼 『Zen in the Art of Archery』라는 책을 주저하지 않고 추천해 본다.

이 책은 공부할 때 필요한 교육철학에 대한 보조 참고서적이다. 주요 내용은 서양인의 관점에서 살펴 본 동양적인 삶과 사상, 교육방법 등에 대한 것이다.

삶은 인간의 움직임일 것이고 사상은 그의 빛나는 가치관이다. 이로 인해서 교육의 목적과 방법의 틀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누가 어떤 책에 어떻게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더 깊이 있게 읽고 느낄 수 있겠지만, 이 책을 통해 작가의 삶과 종교적 사상 그리고 교육적인 면에서 교훈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저자 유진 헤겔(Eugen Herrigel, 1884-1955)은 독일에서 태어나 자란 교수로서 1930년 일본에서 6년간 서양철학을 최초로 동양에서 가르쳤으며, 또한 불교의 좌선을 궁술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한 사람이다. 저자 스스로 일본선의 대가인 다이세츠 스즈키의 제자가 되어 6년간 직접 궁술을 체험하기도 한 사람으로서 궁술도 좌선과 같이 집중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익혀 나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생각은 신체단련적인 의미도 주지만, 그의 교육적 사상으로도 보인다. 이와 같이 우리의 수행도 교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오래전 저자 자신이 이 책의 내용을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가졌던 방법을 언급해보면, 직접 경험을 느껴보도록 먼저 15분에서 20분가량 좌선을 해본 다음, 왜 하는지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었다.

물론 저자의 경험으로는 일본 조동종의 묵조선으로 줄곧 편안하게 안정을 취하는 것이겠지만, 처음 접하는 자들, 특히 서양 사람들은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15분 이상 앉아만 있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무리라는 생각을 했으므로 명상음악과 함께하는 좌선을 직접 경험하게 했다.

궁술가가 과녁에 집중해서 화살을 당기듯이 흔들림 없는 한 생각을, 서양인에게 무조건 앉아서 하라는 것은 몹시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듯한 느낌에 결국 부처님같이 수승한 분도 어느 한 생에 바로 성불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를테면 인간 개개인 모두가 불성이 있다고는 알고 있지만, 긴 시간이 필요하므로 여일하게 밀고 나아가는 힘이 모자라 그만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서양인에게는 이론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경지에 도달하기란 더욱 그런 것이었다. 그러나 한 번의 좌선 경험이라고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불성에 가까워진다는 이유만으로도 좋은 인연이 되었다고 생각되어진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서로에게 좋은 스승이 될 것이라고 믿어졌으며, 석가모니 붓다처럼 사람은 왜 태어나 병들고 늙어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지를 터득하고자 하는 열의를 가지기도 했었다. 부처님이 수행한 대로 열심히 하다보면 우리의 불성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한 사람, 즉 자기 자신만 깨친다면 깨달음의 의미가 무슨 기쁨이 있겠는가? 기쁨은 타인과 함께 하는 것이 배가 되듯 뜻을 함께 하는 이들이 많아지도록 우리는 꾸준하게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 책은 훌륭한 스승과 여일한 제자 사이에서의 교훈이 살아있는 지침서가 되기도 했다. 예를 들면 하나, 오랫동안 배우는 자의 창조적인 인생은 스승을 벗어나는 것인가 아니면 스승이 그 무엇을 가져다주는 것인가?(p.5) 둘, 스승의 어깨를 딛고 올라선 단계로서, 너는 이제 본궤도(더 이상 스승이 필요 없는 지점)에 이르렀다. 스승과 제자가 둘이 아닌 하나인 곳에 도달함(p.65)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스승이 어느 날 갑자기 떠나도 좋다고 하듯이 스승과 제자 중 누가 제자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셋, 여기에서 가르침에 내포된 점은 무엇일까? 등등.

다행히 우리는 훌륭한 스승을 만난 유일한 도반들인 만큼 서로서로 지지하고 격려하면서 자신의 불성을 깨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물론, 처음에는 육체적인 피로가 따르겠지만 지속적인 노력을 하다보면 자연스러워지며, 어느 사이에는 깊은 경지에 이르게 되고 내면으로는 기쁘고 타인들의 마음도 더 잘 이해하게 된다. 아울러 이 책자의 내용도 완벽하게 알게 될 것이다.

이 책의 종교, 이념, 지역을 초월한 개방정신과 스승이 제자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제자 자신이 본인에 대해 알고 있는 것보다도 제자를 더 잘 이해하여야 한다는 교육철학과 배움은,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익혀진다는 사상은 책을 이해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다각도로 본받을 바가 많을 줄로 믿는다.

선지식을 만나다

- 감산덕청 선사 -

현 서 / 사집과

▲감산덕청 선사 좌탈모습

사리암으로 가는 소나무 길은 여름을 흠뻑 느끼게 해준다. 나뭇잎 사이로 살짝 반짝이는 햇빛과 시원한 아침공기를 마시며 걷다 보면, 무더운 날씨에도 참선 수행을 열심히 하고 계신 스님들을 만날 수 있다. 결제 기간이라 스님들의 공부에 혹 방해는 되지 않을까 문수선원으로 가는 다리목에서 서성거리기만 한다.

삭발염의 한 후, 나는 참선으로 분주한 마음을 달랜다. 비단 나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어디서건 참선의 매력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직접 지도해 주시는 스님부터 책, 비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참선의 기본을 익힐 수 있게 된 덕분이다. 옛 선사스님들은 어떻게 참선을 하셨는지, 참선하는 방법이나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하는지, 나 역시 참선에 대해 공부 하던 중 뜻밖에 선지식을 만나게 됐다. 바로 감산스님이다.

감산스님(1546~1623)은 중국 명나라 말기에 참선을 부흥시킨 분으로서 금릉 전조 출신이며 이름은 덕청(德淸)이요, 호는 감산(憨山)이다. 12세에 금릉 보은사에서 경교를 익히다가 19세에 구족계를 수지하였다. 이후 산세가 험준하기로 유명한 오대산 용문사로 올라간 스님은 한 허름한 움막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좌선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때가 스님의 나이 29살, 1575년 겨울이었다. 눈이 많이 내리는 추운 날씨 속에서도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한 생각 일념으로 수행하고 있던 스님은 어느 날 홀연히 자신의 몸을 잊어버리는 삼매체험을 하게 된다. 명료한 의식 속에서도 자신의 몸과 마음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다. 스님은 삼매에서 깨어나자마자 한 게송을 읊는다.

瞥然一念狂心歇　갑자기 한 생각 헐떡거리는 마음 쉬어지니
內外根塵俱洞徹　안팎의 육근과 육진 함께 훤히 뚫렸네
飜身觸破太虛空　몸을 뒤집어 큰 허공 부숴 버리니
萬象森羅從起滅　이에 삼라만상이 생멸하는구나

삼매에 대한 체험을 어찌 이리도 생생하게 그려낼 수 있을까. 헐떡거리는 마음을 내려놓고, 몸의 안과 밖을 시원하게 뚫고, 허공과 내가 하나가 되며 내 한 생각에 따라 삼라만상이 나고 죽음을 깨달은 경지. 삼매에서 깨어난 스님의 마음은 얼마나 개운했을까 ….

그 후, 스님은 바로 산에서 내려와 용문사의 작은 방에 문을 걸어 잠그고 다시 한 번 삼매에 빠진다. 5일간 먹지도 자지도 움직이지도 않은 채 꼼짝없이 삼매에 든 스님은 한 어린 동자승에 의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사람들은 스님을 깨우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마지막 수단으로 요령을 힘차게 흔들자 스님은 삼매에서 깨어났고, 이 이야기는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다.

이후에도 스님은 평생을 올곧게 참선수행에 정진하셨으며 이러한 정진을 통해 투득한 견지로 모든 경론을 주석하셨으니, 그 대표적인 것이 『능엄경통의』, 『관능가경기』, 『법화경통의』를 비롯하여 수종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노자, 장자, 대학, 중용 등의 중국고전들에 대한 주석서도 많이 남기셨으며 특히 삼교합일론을 주창하셨다. 이 주장의 요지는, 유불도(儒佛道) 삼교는 보는 관점에 따라 각기 나누어질 뿐, 기본적인 핵심은 다 같아서 모두 심법(心法)을 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감산스님의 주장은 평소 내가 생각하고 있던 종교의 일원성과도 일맥상통한다. 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람다울 수 있는지, 마음에 접근하는 방법과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찾아가는 여정에 대해 관심이 많다. 사람마다 자기만의 독특한 인생관을 가지고 각기 다른 삶의 모습들로 어울려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아무리 달라도 우리들의 기본적인 성품은 같다고 생각해왔다.

선 · 교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루며 공부하신 스님은 1623년(78세), 목욕을 한 후 불전에 분향하고 나서 대중에게 "나고 죽는 일이 큼을 잊지 말라, 죽음은 금방 닥쳐오느니라.(生死事大 無常迅速)"라고 말씀하신 후, 단정히 앉아 입적하신다. 지금도 그 올곧한 스님의 육신은 조계산 보림사(남화사)에 육조 혜능의 육신상과 함께 보존되어 있다.

'참선만 잘하면 되지' 라는 나의 무지한 생각을 일깨워 주신 스님. 뛰어난 참선의 대가이셨으면서도 내전은 물론이고 외전까지 두루 섭렵하여 후학에게 가르침을 전해주신 감산스님. 스님은 눈이 없던 내게 눈을 주셨다.

소박하면서도 품위를 잃지 않은 감산스님의 모습. 스님의 일생을 통해서 보여주신 삶의 조화와 균형, 승려로서의 위치를 분명히 인식하신 그분의 모습은 삭발염의한 승려로서 앞으로 평생 본받아야 할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별은 불법을 따른다

이시우 / 천문학자

인류의 발달과정에서 가장 처음 생긴 학문이 하늘의 천체에 대해 관심을 보인 천문학이다. 지상의 생물들은 인간에게 유익하기도 하지만 인간을 해치는 투쟁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런데 하늘의 빛나는 별들은 인간에게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으면서 빛을 뿌려주는 신비스럽고 경이로운 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하늘을 숭배하면서 天神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이 천신은 우주 만물을 지배하며 生住異滅과 成住壞空을 관장한다고 보았다. 이런 시대야말로 진리가 살아있고, 탐진치 삼독이 인간의 내면에 뿌리 깊게 내리지 않았던 시절이다. 그러다 점차 인간의 지혜가 늘면서 문명이란 덮개의 옷을 입고 물질을 내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생기면서부터 인간은 탐진치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의 四相이라는 갑옷으로 치장하게 되었다. 인류 역사상 이를 가장 슬프고 두렵게 바라본 사람이 바로 고타마 싯다르타였다. 그는 인류의 원초적 소망이 담긴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고 깨침을 얻었으며 그로부터 불교라는 종교와 불법이라는 진리의 교리가 생겨난 것이다. 새벽의 밝은 별들을 바라보며 成道한 붓다는 과연 광대무변한 하늘을 바라보고 무엇을 느꼈을까? 우주에 대한 붓다의 깊고 넓은 뜻을 헤아리기 전에 먼저 하늘의 이치를 지닌 별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자.

영하 250도 정도의 아주 차가운 성운물질[약 90%의 가스와 10%의 티끌로 구성]이 모여 중력수축을 하면 중심부의 온도가 점차 올라간다. 수축으로 중심부의 밀도가 높아지면 강한 인력 작용으로 물질이 중심부로 급격히 모여드는 중력붕괴가 일어난다. 이때 중심부의 온도가 천만도 이상 상승하면서 4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으로 융합되는 수소핵 융합반응이 일어나면서 빛을 내는 별로 탄생된다. 열악한 조건에서 탄생된 별은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오는 물질이 평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이 된다. 그래서 별은 인간처럼 밖에서 양식을 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애초부터 탐진치 삼독이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안정된 조건을 갖춘 모태에서 성장한 후 빈손으로 세상 밖으로 나오므로 불안정한 여생을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인간은 탄생과 더불어 苦가 시작된다고 한다. 이러한 고는 근본적으로 양식을 구하는 모든 과정과 연관되어 탐진치 삼독을 일으키면서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게 된다. 그렇지만 언젠가 죽는다는 것만은 확실한 진리로 남는다.

우주 만물은 태어나 살아가며 머물다가 죽어 사라져 버린다는 생주이멸과 이루어져 지나다가 언젠가는 멸해서 사라져 버린다는 성주괴공의 진리를 터득한 붓다는 이 모두가 끊임없이 변해간다는 諸行無常과 변하기 때문에 고정된 자성이 없다는 諸法無我에 따라서 만물은 상호의존적 관계를 이루어 간다는 연기법을 발견했다. 이것은 비단 인간들 사이의 인연법에 따른 心的연기뿐만 아니라 물체들 사이에도 연기법이 적용된다는 物心연기법을 2600여 년 전에 발견한 것이다. 물체들 사이의 연기법은 16세기에 뉴턴에 의해 발견된 만유인력법칙에 해당한다.

이런 천재적 혜안을 갖춘 붓다는 별의 세계에는 탐진치 삼독이 없는 연기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음을 알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붓다는 만물의 생주이멸의 이치에 따라서 별도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것을 알지만 현재 빛을 내고 있는 별이 밖에서 양식을 얻고 있다는 증거를 직접 볼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별들은 삼독이 없기에 팔정도의 수행이 필요치 않다. 일찍이 붓다는 인간 세상의 아픔을 심신으로 느끼고 고행 길에 들었고, 참다운 진리를 찾아 다시 서른아홉 해에 걸쳐 선정을 닦고 반야 지혜를 쌓으면서 수많은 중생을 제도했다. 이 과정에서 붓다는 고통에 시달리는 인간도 가능한 한 별처럼 청정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서원을 세웠을 것이다.

별도 인간처럼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프다. 왜냐하면 음식의 메뉴가 수소에서 헬륨으로 바뀌게 되고 또 밖으로 나가는 에너지의 전달과정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별은 불안정해지면 수축 팽창 운동을 하면서 물질을 방출한다. 그러면서 다시 안정을 찾는다. 이처럼 인간도 남에게 많이 베풀면서 자기 것을 줄인다면 많이 가지기 때문에 생기는 근심 걱정이 사라져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 삼독이 생기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간세계에는 늘 탐진치가 따라다닌다. 그래서 이를 여의도록 계정혜 삼학과 팔정도가 필요한 것이다. 별의 경우에는 젊든 늙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삼독이 없으며 또한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의 이법을 무위적으로 따르기 때문에 계정혜 삼학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 그러니 무엇 때문에 팔정도가 필요하겠는가!

삼학이란 무엇인가? 물리적으로 쉽게 설명하면 삼학이란 최소작용의 원리이다. 즉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에 머물고, 외부 반응에 대해 가장 적은 에너지로 대응하는 것이다. 물은 항상 가장 낮은 곳에 머무른다. 물이 지나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옆으로 비켜 지나간다. 이처럼 외부 반응에 대해 들뜨지 않고 心身을 낮추면서 평온을 찾아 가는 것이 최소

작용의 원리이며 삼학이다.

일반적으로 상의적 연기관계에서 개체간의 질서의 따름이 戒이고, 여기서 안정된 상태에 이름이 定이며, 이러한 상태가 지니는 이치의 이해가 慧이다. 육조혜능은 '戒는 몸을 고요히 함이며, 定은 마음을 고요히 함이고, 慧는 의심을 없애는 것'이라고 했다. 계정혜 중에서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엄격한 계율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된다. 인욕바라밀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계는 자신의 생명과 바꿀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 왜냐하면 반드시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이 결과는 고스란히 다른 사람에게 피해로 전가되기 때문이다. 남에게 어떠한 명분으로든 피해를 끼친다는 것은 죄악 중의 죄악이다. 별들은 절대로 다른 별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

붓다는 임종을 앞두고 이렇게 말했다.

"나는 오직 善道를 찾고자/ 내 나이 스물아홉 살에 출가하여/ 이미 쉰한 해가 되었지만/ 그간 깊이 홀로 생각해 온 것은/ 다만 계정혜의 실천이었다./ 이 세 가지 실천하는 것을 떠나서/ 그 어디에도 수행자의 길은 없었느니라."

결국 계정혜 삼학만 잘 지키면 이것이 몸에 젖어 들어서 자연스러운 바른 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解脫이고, 차별심이 사라져 秩序界에 들어 있는 것조차 잊는 무위적 상태에 놓임이 解脫知見 즉 涅槃에 이름인 것이다. 우리가 깨달음에 이르고자 한다면 별처럼 살면 되는 것이다. 얼굴만 치켜들면 하늘의 무수한 별을 볼 수 있다. 설령 도시 불빛으로 별을 직접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마음속에는 어릴 적에 심어둔 숱한 별들이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언제나 별과 더불어 별처럼 사는 것이 곧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요 불성을 드러내는 길이며 그리고 붓다가 성도를 이룬 것과 같은 그 길일 것이다.

두 사람 사이의 인연관계 즉 연기관계는 대체로 간단해 보인다. 그러나 이들도 실제는 사회라는 집단 속에 들어 있다. 따라서 우주 만물은 집단에서 일어나는 연기관계를 따르게 된다. 별들의 경우도 별이 단독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집단으로 태어나면서 아름다운 발광성운을 이룬다. 성단 내에서 별들은 성단 중심 주위로 회전하면서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는 연기관계를 일으킨다. 이 과정에서 별들은 최소작용의 원리에 따르며 에너지 等分配가 일어난다. 그 결과 구속력을 강하게 지니는 무거운 별은 성단 중앙으로 모이고, 가벼운 별은 속도를 얻어 외곽으로 치우치면서 성단에 활성도를 높인다.

이러한 경우는 인간 사회의 집단에서도 똑같이

▲〈장미성운(발광성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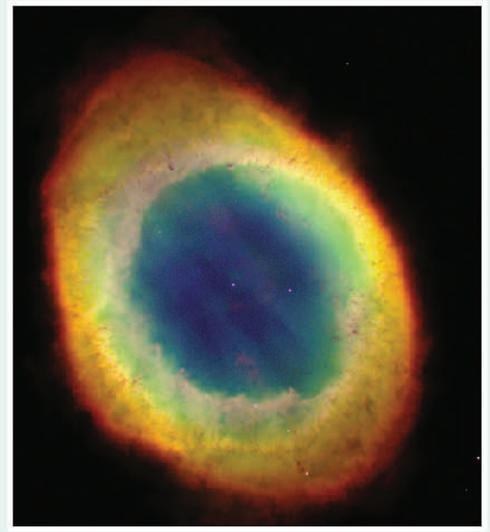
적용된다. 만약 어떤 집단에서 최소작용의 원리에 따라 연기관계가 잘 이루어진다면, 自他 분별이 없는 평등성과 안정된 이완성이 달성되면서 구성원이 알맞은 자리에서 자기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六相圓融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집단 내 구성원의 존재가치, 삶의 가치가 동등해지면서 불법의 꽃이 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대해 현수법장은 『화엄지귀』에서 이렇게 말했다.

"자기가 곧 他者이고, 他者가 자기이다. 자기가 곧 他者이기에 자기가 정립되지 않고, 他者가 곧 자기이기에 他者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他者와 자기가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하는데 그것은 동시에 顯現한다."

집단 내에서 모두가 서로 주고받는 적극적인 연기관계를 거치면 모두가 평등하고 안정되게 이완되면서 집단의 보편적 특성이 성립된다. 그러면 주체와 객체의 분별이 없어지기 때문에 自他不二의 無我상태에 이른다. 이러한 대립이 없는 평등관계는 곧 존재가치의 올바른 실현을 뜻한다. 그리고 一卽多 多卽一 또는 一中多 多中一이 성립한다. 다시 말하면 이완계에서는 특정한 한 개체에 의해 집단의 전체 특성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집단 전체의 보편적 특성에 의해 구성원의 특성이 규정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집단에 속한 구성원의 행동 규범을 보면 그 집단의 특성을 알 수 있고, 또 그 집단의 특성을 알면 구성원의 특성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제대로 된 집안에서는 자식의 행동거지를 보면 그 집안을 알 수 있고, 또 집안을 보면 그 집안 자식들의 품행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별이 쇠퇴기를 맞게 되면 매우 불안정해지며 많은 물질을 밖으로 방출하면서 안정을 찾아간다. 그런데 인간의 경우는 늙을수록 老欲이 생겨 더 좋은 것, 더 명예로운 것, 더 편한 것 등을 추구하기도 한다. 그래서 불법과 불교가 필요한 것이다. 별의 쇠퇴기는 매우 빠르게 지나면서 임종을 맞는다. 이 때 별은 중심부의 에너지원이 고갈되므로 온도와 압력이 급격히 감소한다. 그 결과 별 전체가 중심부로 붕괴되면서 많은 물질을 밖으로 방출하고 초고밀도의 잔해를 남긴다.

예를 들면 태양처럼 가벼운 별은 임종 때 조용히 많은 물질을 방출하면서 행성상 성운을 만들고 중심부에 백색왜성의 잔해를 남긴다. 행성상 성운은 계속 밖으로 팽창하면서 흩어지고 백색왜성은 지니고 있던 에너지가 모두 방출되면 식어서 암체로 남게 된다. 앞으로 50억 년쯤 후에 태양이 임종을 맞아 지나다가 암체가 되면 지구를 비롯한 모든 행성들은 이 암체와 함께 어둠 속에서 우주를 떠돌 것이다.



▲〈고리성운(행성상 성운)〉

한편, 태양보다 15배 이상 무거운 별은 임종 때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는 초신성이 되면서 많은 양의 물질을 방출하고 중성자별이나 블랙홀 등을 남긴다. 밖으로 방출된 많은 물질은 흩어져 성간물질이 되어 다음 세대의 별을 탄생시키는 씨앗이 된다. 뿐만 아니라 초신성 폭발 때 생기는 고온, 고압 하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인 금, 은, 구리, 플라티늄(백금), 우라늄 등등이 형성된다. 우리는 금반지를 볼 때마다 별에게 감사해야 한다.

밤하늘을 수놓은 수많은 별들은 모두 같은 세대의 별들이 아니다. 가장 나이 많은 고조할아버지 세

대, 증조할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 아들 세대 등 크게 5세대의 별들이 함께 있다. 여기서 태양과 행성 그리고 인간은 제4세대로 아버지 세대에 속한다. 밤하늘에 보이는 대부분의 밝은 별들은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의 별들이다. 윗세대의 별들 중에서 태양보다 무거운 별들은 이미 죽고 가벼운 별들만 남아 있으며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망원경으로만 겨우 볼 수 있다.

별은 태어날 때 평생의 양식을 가지고 나오므로 일생의 운명이 정해진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아플 것이며, 또 언제 어떻게 임종을 맞아 일생을 마치게 될지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죽음으로써 자연스럽게 다음 종족을 위해 탄생의 씨앗을 뿌려 둔다. 여러 별들이 죽으면서 흩뿌린 물질이 모여서 다음 세대의 종족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인간처럼 생물학적 DNA라는 유전인자를 지닌 족보라는 것이 없다. 그렇지만 별들이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헬륨보다 무거운 물질[重元素라 함]을 만들어 냄으로써 세대가 내려갈수록 중원소 함량은 증가한다. 불법에 따라 별들의 세계에서는 生과 死가 같다. 왜냐하면 죽은 별의 잔해인 양식에서 다음 세대의 별이 태어나고 또 이 별이 죽어서 다음 세대를 위해 양식을 잔해로 남겨놓기 때문이다. 즉 糧食[음식]에서 糧食[음식]으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별에서는 육도윤회란 존재하지 않는다.

의상대사의 법성게 중에 '일미진중함시방(一微塵中含十方)' 이란 말이 있다. 한 티끌 속에 우주가 들어 있다는 것은 티끌을 이루는 구성성분이 우주에서 왔으므로 티끌 속에 우주적 정보가 들어 있다는 뜻이다. 인간을 구성하는 물질이 모두 우주, 즉 별에서 왔다. 티끌이 내 몸에서 죽어 떨어진 잔해이든, 이부자리에서 떨어진 것이든 모두가 궁극적으로는 별에서 온 것이다. 인간이 별에서 왔기에 우리는 조상별 형제별을 보면서 이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신비스럽게 생각하며 친근감이 드는 것이다.

아마 붓다도 수많은 밤을 지새우면서 별들을 보았을 것이고 그때마다 별과 하나 되는 깨달음의 경지에서 생주이멸과 만물의 순환을 생각했을 것이다. 인도의 종교 철학자 고빈다(670?~720?)는 이렇게 말했다.

"명상이나 요가 수행을 통해 … 잠재의식 속에 숨겨진 무한한 기억의 보물 창고를 열 수 있다. 그 안에 前生들의 기록뿐만 아니라 우리 종족의 과거, 인류의 과거 그리고 인간이 되기 이전에 살았던 온갖 형태의 삶의 기록들까지 보관되어 있다."

인간의 근원이 우주에서 왔으므로 우리 몸속에는 인간이 생긴 이래로 전래되어 오는 생물학적 유전인자와 집단무의식 그리고 인간으로 태어나기 이전의 물질상태가 지닌 우주적 정보가 고스란히 우리 몸속의 제8식 아뢰야식과 제9식 청정식에 간직되어 있다. 그런데도 어찌해서 인간은 화엄법계의 불법을 따르지 않고 탐진치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젖어 허덕이고 있는가? 그리고 별을 보고 성도한 붓다의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없다면 오늘날 우리는 붓다가 빠진 불교를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시우 님은 우리나라 관측천문학의 개척자로 경북대와 서울대 천문학과 교수를 지냈으며, 현재 한국과학기술원 한림원 정회원으로 있다. 우주관찰을 통해 실체적인 깨달음의 세계가 우주에 보편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내는데 평생을 보냈다. 저서에는 『별과 인간의 일생』, 『별을 보면 법을 보고 법을 알면 별을 안다』, 『천문학자와 붓다의 대화』, 『똥막대기』 등이 있다.

나무 그늘 아래서

아원/사교과

일념으로 하면 돼

- 가사 도편수 무상스님을 뵙고 -

성 호 / 대교과

밝다. 나뭇잎 사이로 쏟아지는 햇빛, 그러나 거칠지 않다. 숲이 그 빛을 한번 걸러내어 나무, 풀내음이 부드럽고 참 맑다. 수행자가 수행자일 수 있는 것은 쏟아지는 햇빛을 부드럽게 여과시키는 저 숲처럼 온갖 부정적인 에너지와 감정들을 충분히 정화시키는 일에 온 몸과 마음을 기울이는 간절함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쉿! 선방이다. 비구니 스님들이 한창 마음공부 중인 선방을 조심스럽게 지나자 그 숲길 끝에 우뚝 솟은 청동 미륵불, 속리산 법주사다.

"세상에 훌륭한 스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한테까지 이렇게들 찾아왔나."

마을 경로잔치에 참석하신 스님은 우리가 도착하는 시간에 못 맞출 것 같다며, 점심공양부터 하라는 등 여러 가지로 후학들을 배려하시더니, 많이 기다리게 해서 영, 미안하신 얼굴이다.

가사 짓는 일에 평생을 보낸 가사 도편수 무상스님. 도편수라 하면 집을 짓는 우두머리격을 말하는데, 가사 도편수라 함은 가사 불사의 총감독이라는 말이다.

어릴 때 법주사로 수학여행을 갔는데 스님이 5조 가사를 수하고 법당을 안내하는데 모자를 쓴 노스님이 저 마당에 계시는 미륵부처님 앞으로 천천히 걸어 가시는거라. 그 모습을 보니 나도 그만 중이 되고 싶은거라.

횃대에 여러 벌의 가사가 걸려있는 방에는 서너 명이 앉아 차 마시기에 딱 좋은 다탁이 전부다. 우리들의 인사를 받자마자 오후의 나른함에 시원한 바람 한 줄기 불어가듯, 지나간 시간이 못내 아쉬운 듯, 차 한 모금으로 목을 축이신다.

이것을 필연이라고 해야 할까. 가사 수하신 스님의 모습에 발심하였던 어린 소년이 출가하여 가사 만드는 것을 화두로 삼아 올곧게 정진을 하셨으니 ….

가사는 언제부터 만들게 되셨나요?

어릴 때부터지. 옛날에는 지금처럼 가사가 흔하지 않아서 남이 하던 것을 얻어 입었어. 그 가사도 몇 년 하고 다니다보면 헤지고 향불에 구멍도 나고, 촛농도 떨어지고 그러잖아. 가사가 필요한거라. 그런데 소문을 들어보니 통도사에서 가사 불사 한다고 그래. 가서 스님 심부름을 해주고 가사를 얻은 거야. 가사하러 다니는 스님을 가사편수라고 하는데 그때 편수스님이 법장스님이셨어. 내가 선방에 다닐 때였는데, 어디 가사 하러 갈 일이 있으면 편수스님한테서 연락이 와. 그러다보니 자연으로 배워져. 자연으로 배워지는 거라.

차를 따라 주시는 손이 참 복스럽다. 저 복스런 손으로 얼마나 많은 가사를 재단하고, 만들었을까. 또 얼마나 많은 스님들이 그 가사를 수하고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얻기 위해 남모르는 자신과의 싸움을, 눈물 나는 정진을 하셨을까. 우리가 지금 수하는 만의(縵衣)가사 역시 스님께서 직접 운문사에 오셔서 불사를 하셨다니, 쉬이 살 일은 아닌 것이다.

그래도 이것을 하겠다는 생각은 안했으니까 배우지도 않고 시키는 것만 했지. 그런데 어느 날 편수스님이 해인사 삼선암에 가사 불사 하러 간다고 대답해 놓으신 상태에서 통도사에 가시게 되었지.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큰일 났지. 가사불사 날을 받아놨는데, 그렇잖아? 그래 날 보고 가라 하면서 살림을 주시는 거야. 자 말이야, 대나무로 만든 요런 자를 주셨어. 살림나면 숟가락 주고 밥그릇 주듯이, 그렇게 내주는 거야.

지금은 가사원에서 가사를 만들어 살림이 제대로 없다 하시면서 벽장에서 오래된 주머니를 하나 꺼내신다. 주머니 색도 괴색이다. 그 속에 손때 묻은 자들이 쏟아진다. 조의 길이, 너비, 시접, 란, 첩의 너비 재는 것 등 각각의 세부치수가 적힌 온갖 종류의 다양한 자들이 1m길이에서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는 것 까지 어림잡아도 수십 개다. 한 눈금의 차이로 어긋나는 가사제작이고 보면 단 한치의 어긋남도 허용할 수 없는 엄격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가사제작에 필요한 재단, 마름질, 조 내는 것을 하룻밤 만에 배웠지. 그럴 거 아니여? 눈으로만 봤지 직접 안 배웠으니까. 그래 갔는데 어른들이 큰일이지, '무상스님이 왔는데 우리 가사 버렸다', 이래. 뒷방에서. 어떻게 하나,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간 건데. 그 스님 모시고 할 때는 300령(가사 세는 단위를 령이라고 해)을 했는데, 내가 할 때는 350~360령을 한거야. 많이 했어. 그런데 그 스님 모시고 할 때보다 내가 좀 먼저 끝냈어. 회향날이 앞당겨진 거지. 우리 스님네들이 시칠 줄은 몰라도 보는 데는 선수야. 비구니스님 40~50명이 함께 했단 말야, 한 달을. 같이 해 놓고 보니 좋다하고 잘했다고 그래. 그때부터 독립을 했어.

가사는 본래 화장장이나 무덤가에서 주운 아주 하찮은 헝겊으로 지은 옷이라 분소의(糞掃衣)라고도 하는데, 가장 구하기 쉬운 물감으로 염색하여 만든 의복이다. 쓸모없는 천으로 몸을 덮어 수행하는 것은 의복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온갖 유혹을 참아 이겨내는 인욕을 상징한다. 이러한 가사가 요즘은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했다.

지금은 종단에 의체위원회가 있어 거기서 관여

▲가사에 대해 설명해 주는 무상스님

를 하지. 먼저 가사 조수에 따라 대, 중, 소로 조의 길이와 너비를 계산해서 본을 정해놓고 일을 하기 시작해. 그리고 주복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되게 불이고 란(가사의 가장자리)과 첩(네귀퉁이에 덧댄 사각천으로 사천왕이라고도 함), 연봉매듭과 고리를 다는 거야. 지금은 종단문양인 삼보륜이 가사천에 짜여져 나오니까 문양 맞추기가 아주 어려워. 원칙은 삼보륜이 조엽의 가운데에 오게 되어있지. 그래 가사 재단할 때 삼보륜이 단에 하나 장에 하나 오도록 하고 란과 첩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하게끔 결정하고서는 지금은 안착이 되었지.

『사분율』 권40에 보면 부처님께서 왕사성에서 남방으로 유행하시다가 발이랑을 보시고 "이는 세간의 복전이니 출세간의 복전인 승가의 의복도 이와 같이 만들라"고 아난에게 명하신다. 그래서 아난이 쪼갠 옷, 즉 가사를 만들게 되었는데 펼치면 반듯반듯한 논두렁을 보는 것처럼 아주 단정하다.

조계종의 가사는 한국 전통의 홍가사와는 달리 불교 정화 이후 봉암사에서 자운, 성철, 고암스님 등이 결의하여 율장을 근거로 새롭게 디자인해서 만든 것이다. 그 후 1962년 8월 28일 의제법이 제정되면서 괴색가사를 법장스님, 무상스님, 보성스님이 도편수로 있으면서 가사 불사를 통해 보급하기 시작하였다.

"조수는 어떻게 되나요?"라는 질문에 횃대에 걸린 가사를 가져오라 하신다. 노란 가사, 반가사, 절가사 등 가사 종류도 여러 가지다. 가사마다 제각각 특징이 있고, 매듭도 천으로 만든 연봉매듭, 향나무를 깎아 매단 것 등이 있다. 스님 손에서 가사가 논두렁처럼 펼쳐졌다. 그 손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며 가사에 대해 설명해 주는 모습은 한없이 진지하다. 가사에 대한 애정이 그러하리라.

길이가 한 조라. 이렇게 세로로 이어 붙인 천, 이것을 말해. 여기가 복판이라, 집 지을 때 서까래 걸치듯이 가운데 이렇게 오는 것이 주복이야. 주복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똑같이 나가야 돼. 몇 조가 되던 간에 단이 위에 오고 장이 밑에 오는 거라. 조의 긴 부분이 장(長)이 되고, 짧은 부분이 단(短)이 되는 거라. 항상 장을 먼저 이야기 하고 단을 말하지, 단은 하나야. 그리고 조와 조 옆의 날개가 조엽이라. 5조는 1장1단, 7조는 2장1단이 한 조라. 9조에서 13조까지 하품은 2장1단, 15조에서 19조까지 중품은 3장1단, 21조부터 25조까지 상품은 4장1단이 한 조라.

어느 가사든지 단이 하나고, 품수에 따라서 장이 늘어나는 것은 수행할수록 중생들에게 이익을 줌으로써 성인이 많아지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다. 단이 중생을 상징하고 장은 성인을 상징하는데, 한 공간에서 서로 공존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장과 단이 없는 만의는 통이니 범부와 성인이 경계가 없는 것일까. 모양이라 할 만한 것은 사천왕만이 있는데 사방에서 보호해 주는 의미가 있음을 늘 기억한다면, 그 보호 속에서 수행하고, 일체의 모든 유정무정들에게 이익되는 일에 결코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일인 것이다.

가사의 생명은 바느질이야. 그리고 다림질도 잘해야 돼. 잘못되면 가사가 돌아가. 몸에 맞질 않아. 란과 란이 겹쳐지는 부분, 조엽과 조엽이 겹쳐지는 부분의 양쪽을 5밀리 이내로 비슷하게 잘 박아야 대각선이 반듯하게 나와. 특히 조엽이 만나는 부분에는 田자 모양으로 나와야 돼. 논두렁 경지 정리 잘해놓으면 보기 좋잖아.

가사를 만들다가 정랑(화장실) 가는 것이 불경스러워 꾹, 참았다가 일이 다 끝난 다음에야 볼일을 보았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서야 이제는 여사로 입는 가사가 더없이 복된 것임이 느껴져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사만 만지작만지작했다. 그 사람의 마음에 맞게 우리는 정녕, 은혜로운 수행을 하고 있을까?

아미타불 기도하잖아? 극락세계에 9품이 있듯이 가사에도 9품이 있어. 9조, 11조, 13조 가사는 하품이요, 15조, 17조, 19조는 중품이요, 21조, 23조, 25조는 상품이야. 그래서 가사만 수하면 극락세계에 가 있는거라. 그렇잖아? 가사를 수하고 과연 부끄러움이 없으면 극락세계에 가 있는거라. 가사를 수하고 부끄러움이 없이 내가 수행을 잘했느냐, 과연 극락세계에 난 것처럼. 항상 살펴야 돼.

그래서였을까. 극락세계에 구품연화대가 있듯 가사 수할 때 고리에 연봉매듭을 걸어 가사에 연꽃을 피우게 한 뜻은 사문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일념으로 정진하며 늘 깨어있으라는 것이었음을 새삼 되새긴다.

가사는 정진하는 마음으로, 화두 드는 마음으로 만들어야 해. 뭉뚝한 송곳으로는 아무리 해도 뚫어지지 않지만, 뾰족한 송곳으로 뚫으면 단방에 뚫리듯이 가사불사 하는 것 또한 일념으로 해야 해. 공부가 따로 있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일념으로 열심히 하는 것도 다 공부여. 마당을 쓸 때도, 글씨를 쓸 때도, 화두하는 일념, 기도하는 일념, 일념 이상 없는 거야. 일념으로 하면 그 다음에는 쉬워져.

아직 우리에겐 요원한 일이다. 일념으로 한다는 것. 떨어진 양말 하나 꿰매는 일에도 바느질은 어김없이 삐뚤삐뚤, 옷에 이름 새기는 것조차도 여기저기에서 땀이 어긋나는 것이다. 망상에 헐떡이는 모습을 여지없이 들키고 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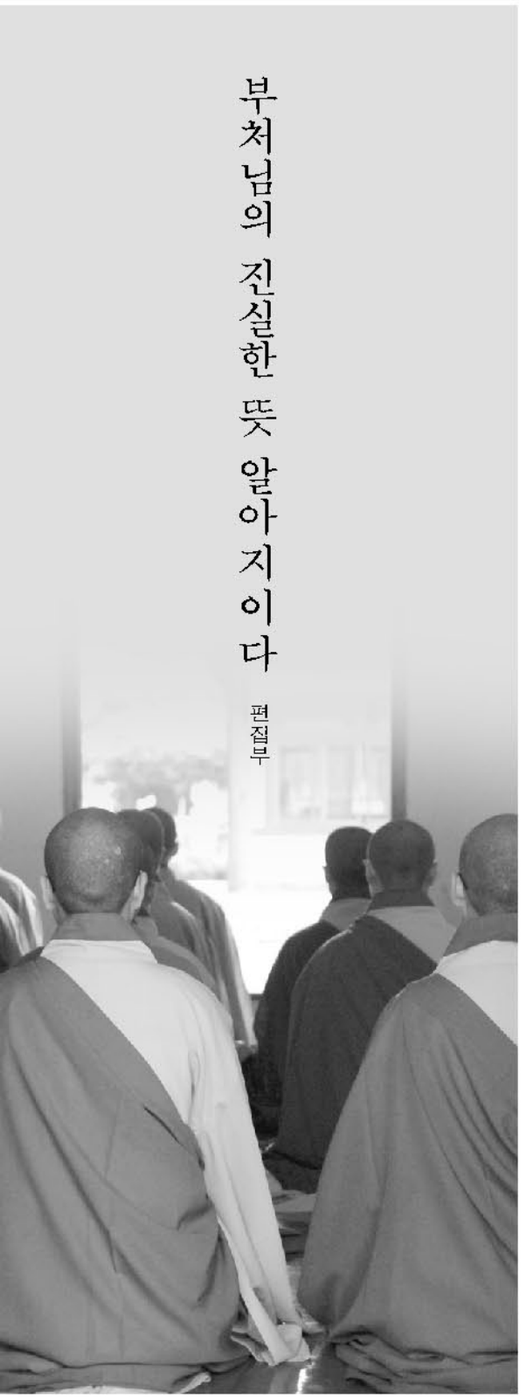
우리 스님네도 가사 만드는 것 알고, 할 줄 알아야 돼. 하다못해 속고의나 속조끼 정도라도 내 손으로 만들어야지. 이제는 가사도 종단의 가사원에서 만들더라도 스님들이 만드는 법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단청도 옛날에는 우리 스님네들이 했어. 못하는 일이 뭐가 있는 줄 알아? 지금이야 세월이 달라져서 세상 따라가지만 머리 깎고 산다는 게 그런 게 아니야. 우리도 부처님 같이 되어야지 하는 원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지. 버릴 것은 하나도 없어. 지금은 안되더라도 행동은 부처님 같이 하면 될 거 아냐? 스님이 해야 될 일은 해야 돼. 다 갖추어야 해. 힘들다고 사양하지 말고.

속리(俗離), 참 깊다. 길이 끝나는가 싶으면 어느새 길이 나오고, 나왔는가 싶으면 길이 보이지 않는 길, 오늘의 여정이 그렇다. 내 몸을 감싸는 가사가 오직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마음뿐 아니라, 오욕락을 여읜 상징이니, 걸음 내딛는 곳, 서 있는 곳이 중생놀음의 끝이자, 성인으로서의 처음이다. 일념이 아니면 도저히 다가갈 수도, 엿볼 수도, 알 수 없는 수행의 길, 정진만이 유일한 길임을 스님께서 환한 웃음으로 무심히 가르치신다.

▼가사제작에 필요한 대나무로 만든 다양한 자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알아지이다

편집부



밤새 내려준 고마운 비가 그친 여름날 아침. 오늘도 변함없이 상강례를 모시는 청풍료 큰방에 도량 곳곳에 흩어져 있던 스님들이 제각기 하던 일을 정리하고 구름처럼 모여듭니다. 일상의 번다함을 내려놓고 길게 숨을 들이쉬며 오늘을 준비하는 시간.

일찌감치 자리하고서 지긋이 눈을 내려 한 생각 챙기는 스님이 있는가 하면, 종종걸음으로 걸어오던 저 스님은 후원에서 찬거리를 준비했던 모양입니다. 그 앞의 스님은 자기 키 만한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다 왔겠지요. 그리고 맨 앞줄의 스님은 이제서야 고개를 들어 하늘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높고 푸른데, 저기 북대암 아래로는 연기 같은 구름이 피어오르고, 마지막 빗방울은 처마 끝에 매달려 있습니다. 새들의 지저귐이 한창인 아침, 지붕의 가지런한 기와 하나 하나가 씻은 듯 말갛게 보입니다. 푸른 산내음을 머금은 아침 공기 사이로 상강례를 알리는 종소리가 가로지릅니다.

心香一炷徧虛空　變成無盡香雲蓋
奉獻無邊三寶前　願垂慈悲哀納受

마음의 향 한 줄기 허공계에 피워 올리니
문득 다함없는 향기의 구름 법계에 가득 퍼지네
가없는 삼보님 전에 지성으로 받들어 올리오니
바라옵건데 자비로써 애민히 여겨 거두어 주소서

상강례(上講禮). 수업에 앞서 전론주이신 부처님과 설법 당시 부처님 회상에 모였던 모든 불보살님은 물론, 이를 결집 · 번역하고 소초를 달아, 현재의 우리들이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게 해 주신 모든 선지식들께 예를 올리는 시간입니다. 그 장엄한 염불의 첫 구절처럼, 저 하늘의 구름과 어우러지는 청풍료의 한 줄기 향훈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순간, 대중스님들은 어떤 마음일까?

모든 것이 처음인 치문시절. 오직 강원에서만 행해지고 이어져 내려오는 상강례라는 의식에 참례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 벅차합니다. 이제 어엿한 스님으로, 이 대중의 구성원으로서 물결치듯 오고가는 염불 소리에 한 몫 할 수 있음이 환희롭기만 합니다.

사집반. 이제 대중생활에 익어질 대로 익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가끔은 너무 멀게 느껴져서 서장이며 도서 · 절요 · 선요에 간절한 선객 스님들의 자취를 따라 훌쩍 떠나야 하는 것은 아닐까, 저 문 밖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내 『능엄경』, 『금강경』 등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교반이 되고서야 접하는 "如是我聞" 한마디 말에, 고색창연한 금당은 기원정사의 시원한 강당이 되고, 강사스님 말씀은 곧 부처님의 음성이 됩니다. 그렇게 부처님과 우리가 마주 앉아 있는 마법 같은 순간이 이 상강례 끝에 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을 아울러 이 자리에 있는 화엄반, '대방광불화엄경'이라는 편액을 머리에 이고 4년간의 강원생활을 마무리 지어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한 곳에 모여 부처님을, 그 가르침을, 역대 스님들을 부르는 간절한 시간. 이 시간이 행여 일상의 시간 속으로 사라질까 싶어 다시금 목소리를 돋구어 봅니다.

내가 왜 이곳에 있는 것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잠시라도 놓쳐버리면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중생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바쁜 아침 일과 속에서,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칠 수 있는 10여분이라는 이 짧은 의식을 통해서 대중생활 속의 보석과도 같은 개인적 사유시간을 가져 보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도 늘 깨어있기 위한 연습인가 봅니다.

매일 아침 7시, 부처님께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다짐이 담긴 대중의 청아한 염불소리는, 일순간 고요함의 끝을 따라 저 멀리까지 퍼질 겁니다. 불이문을 경계로 범부들은 드나들 수 없는 곳 청풍료에서의 의식이지만 담 넘어 관음전, 텅 빈 만세루를 지나 대웅전까지도 이 소리가 닿을지 모를 일입니다. 이 땅에 불교가 들어 온 이래 천 년을 이어 온 깨침을 향한 이 소리는 법계의 아침을 깨우는 자비의 화음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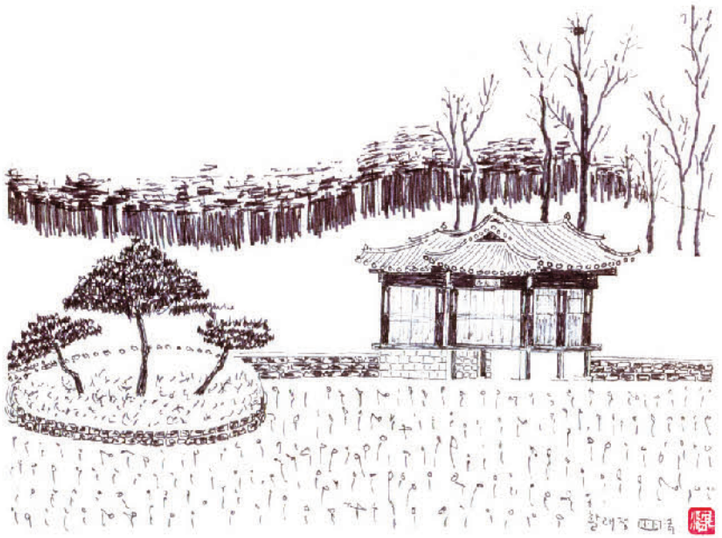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기에 더 환희로운 이 순간을 통해 저 구름 문[雲門] 밖의 세상과도 어우러질 수 있는 진정한 수행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곳, 청풍료 어간에서 마주 보이는 우리들의 관세음보살님!

다시 한 번 엎드려 간절히 청합니다. 오늘 이 도량에 나투시어 이렇듯 진실한 마음으로 간경에 임할 저희들을 지켜봐 주십시오. 그 자비로운 가피 속에서 부처님과 같은 우리 스스로의 참된 성품을 찾는 날을 꿈꾸어 봅니다. 그날이 어서 오기를 바라며, 오늘도 저희들의 수행에는 게으름이 없을 것입니다.

연꽃 필 때 들리는 소리

구 활 / 수필가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의 위에 있다'는 말은 맞는 말인가. 불가에서 흔히 말하는 이 말은 참말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선문답이나 화두 같기도 한 '보임'과 '안 보임'의 문제는 오랜 수행을 거치지 않으면 결론에 이르지 못한다고 한다. 현상을 중시한다면 보이는 것이 우선이지만 정신을 소중히 생각한다면 보이지 않는 것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은 어느 것이 우위에 있을까. 사람의 몸이 일천 냥이라면 눈은 팔백 냥쯤 된다고 한다. 보이는 것이 단연 으뜸일 수 있다. 그렇다고 눈이 소리를 감지하는 귀를 깔보면 안 된다. 태초에도 소리가 빛을 불러와 낮과 밤을 구분했다고 창세기 서두에 소상하게 쓰여져 있다. 눈은 안과라는 단과반의 단일 품목이지만 귀는 이비인후과란 복합반의 선두주자다. 능엄경을 보면 눈은 팔백 가지 공덕을 갖고 있지만 귀는 일천이백 가지 공덕을 지니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등 뒤에서 들리는 소리를 귀는 제자리에서 알아차릴 수 있지만 눈은 돌아보아야 겨우 볼 수 있다. '듣도 보도 못했다'는 말의 순서를 보면 누가 형인지 동생인지를 금방 알 수 있다.

소리를 듣는 귀는 역시 귀물(貴物)이다. 귀는 이비인후과의 반장답게 코가 담당하고 있는 냄새까지 자신이 관장할 때도 있다. 정좌난문향(靜坐蘭聞香). '조용히 앉아 난초 향기를 듣는다'는 옛 선비의 말씀은 귀가 누리고 있는 지고지순의 경지를 쉽게 설명한 것이다. 어떻게 무슨 보청기를 달았길래 향기를 귀로 듣는단 말인가. 오감을 대표할 만한 귀의 신경조직이 우리 몸 전체에 퍼져 있는 것은 혹시 아닐까. 그러니까 몸이 바로 귀라고 말하면 틀린 표현일까. 아니야. 영 틀린 말은 아닐거야. 노르웨이의 표현주의 작가 에드바르드 뭉크가 그린 걸작 '절규'란 작품을 난초 향을 듣는 마음가짐으로 보고 있으면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정말 공포의 절규가 하늘을 뚫고 날아와 심장에 박히는 것 같다. 이때 들리는 절규는 귀가 아닌 온몸을 통해 들린다. 몸을 통해 전달되는 소리는 반드시 전율을 일으킨다. 몸이 알아채는 전율은 바로 오르가즘이다. 아름다움의 극치다. 귀가 듣는 음은 소리의 단위인 데시빌로 측정할 수 있고 눈이 감지하는 빛은 밝음의 단위인 칸데라로 기록할 수 있다. 그러나 몸이 듣는 소리는 높은 음 자리거나 낮은 음 자리거나 아무 상관이 없다. 전율이 일 때 돋는 소름의 단위로 측정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귀는 아름다운 소리만 듣기 좋아하는 편청주의자는 아니다. 뭉크의 그림 '절규'를 보고 있으면 귀를 틀어막아야 할 정도의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원초적인 갈구와 애원이 배어 있다. 그 그림을 보고 나면 산정에서 마음껏 고함을 지른 것처럼 시원하고 후련하다. 그런 은혜로운 감동의 터널을 빠져나오는 데는 적어도 한 며칠은 걸려야 한다.

나는 여태까지 소리 중에서도 그리움을 대표하는 예리성[曳履聲 · 신발 끄는 소리]이나 애내성[欸乃聲 · 노 젓는 뱃소리] 같은 지극히 감성적인 것들만 좋아하고 사랑해 왔다. 바닷가 암자의 구석방에서 듣는 해조음은 얼마나 아름다우며 떡갈나무 낙엽 위에 '후두둑' 하고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는 또 어떤가. 어디 그 뿐인가. 낚시 바늘에 매달려 앙탈을 부리는 붕어의 물장구 소리는 어떻고, 술독에서 '뽀그르' 하며 자지러지는 술 익는 소리는 비발디의 사계를 한 소절로 줄여 놓은 소리보다 훨씬 아름답다. 클래식을 전공하는 음악가들도 더러는 루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와 같은 쉰 목소리의 재즈와 헤비메탈 음악을 듣는다고 한다. 그러니 아름다운 낮은 음 자리의 소리만을 찾아다닌 내게 뭉크의 '절규'는 새로운 각성이었다. 화집을 뒤적이다 뭉크의 '절규'를 만날 때는 오장육부가 확 뒤집어지면서 귀 · 눈 · 코 등 구멍마다 소리가 튀어나올 것 같은 낯선 소리의 향연은 참으로 흥미롭다. 내 의식 속에 차려져 있는 소리만찬이란 밥상 위에 '절규'라는 새로운 접시가 추가되었으니 나는 정말 행복하다. 조선조 정조 때 다산이 한창 젊었던 시절, 친구들과 어울려 죽란시사란 모임을 만들었다. 그들은 가을철 이른 아침에 연꽃이 필 때 들리는 소리를 듣기 위해 '서련지' 연 밭에 조각배를 띄워 두었던 적이 있었다. 뭉크와 내가 좀 더 일찍 태어나 연꽃 만나러 가는 바람과 같은 그 선비들과 조우할 수 있었더라면 참 좋았을 것을. 꽃잎에 맺힌 이슬을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떨어뜨리는 듯한 청개화성(聽開花聲)을 즐기는 그들에게 '절규'에서 울려오는 코러스 같은 그 장엄한 소리를 들려줄 수 있었을 텐데.

연꽃 필 때 들리는 소리나 '절규'에서 들리는 소리나 모두 마음의 귀[心耳]로 들어야 하는 심오한 소리지만 따지고 보면 그게 그거지 뭐. 별 것 아니야.

구활 님은 경북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매일신문사 문화부장, 논설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대수필문학상, 대구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아름다운 사람들〉, 〈시간이 머문 풍경〉, 〈하안거 다음날〉 등이 있다.

자연 속에서 듣는 부처님의 무진법문

치 도 / 사교과

아침부터 대지의 푸른 기운을 더해 주기 위해 비가 내린다. 모처럼 내리는 단비에 방문을 열어 놓고 처마 밑으로 떨어지는 빗물을 바라본다. 아직도 도보순례의 여운이 덜 가신 머릿속에 다시금 유유자적한 낙동강의 물결과 푸르른 나무들의 노래가 들리는 듯하다.

우리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생명체로써 대지와 물과 공기, 나무. 어느 것 하나 없어서는 안 될 자연과 공존하고 있다. 대지 위에 흐르는 강줄기는 우리 몸의 피와 같은 존재이며, 그 물을 마시고 이용하는 우리는 낙동강 일대를 걸으며 자연이 내 몸의 한 부분임을 알고 마음 깊이 느껴보기 위해 이 길을 나서게 되었다.

안동 버스터미널에서 합류하게 된 지율스님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낙동강 일대를 순례하여 우리 강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앞으로 이곳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직접 보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각자 판단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하셨다. "어쩌면 여러분이 보고 있는 낙동강의 이 모습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릅니다. 다음에 이곳을 찾을 땐 이런 아름다움을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라는 말씀에 우리는 폐부를 찌르는 아픔을 느꼈고 아무도 말을 꺼낼 수 없었다. 그리고 덧붙여 국토 개발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책사업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 알고 난 후에 국민이 참여해서 개발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하셨다.

지금은 가뭄으로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안동댐, 지질조사도 없이 92년에 건설되어 식수로도 공업용수로도 사용되지 못하고 흉물스럽게 남게 된 임하댐,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최대의 선물처럼 느껴지는 병산서원과 회룡포 …. 도보순례를 하는 동안 강변 둔치의 손대지 않은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었다. 그러나 또 다른 한쪽에서는 강물을 정화시키고 있는 갈대밭을 불태우고, 포크레인과 트럭이 열심히 강을 파고, 어디선가 산을 깎아 채취해 온 화강암으로 둑을 쌓는 모습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 마을 주민들에게 물어 보니 생태공원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인간이 손대지 않은 곳만큼 자연생태가 잘 보존된 곳이 있을까 마음속으로 반문해 본다.

인간의 이기심과 물질만능주의, 조금의 불편함도 감내하지 못하는 편의주의가 이 대지에 깊은 상처를 내고 있다. 우리 몸이 상처받고 아물고 하면서 살아가듯 이 대지도 상처받고 아물고 하면서 공존해 왔다. 그러나 이 대지에 저 임하댐처럼, 아니 임하댐보다 더 큰 상처가 난다면 회복은 불가능할 것이다. 무조건적인 개발이 아닌 정말 자연을 제대로 알고 이해해서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남기지 않는 방향을 모색해 볼 수는 없는 것일까?

우리는 오랫동안 대지를 밟으며 이 세상 속의 다양성 속에서 살아 왔다. 좋은 것, 나쁜 것, 독, 약 등의 모든 것을 인정하며 살아온 것이지 그것들을 버리지는 않았다. 아니, 버릴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 속에서 북극엔 북극곰이 살고, 남극엔 펭귄이 살고, 숲과 강 그리고 들에는 나무와 동식물들이 사는 것은 네가 있어 내가 있는 것과 같은 이치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인간도 이 지구의 표면 위에 사는 많은 생명체 중의 하나일 뿐인데 숲과 강, 들에서 그들이 살 수 없다면 우리도 살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상대가 있어야 나라는 존재가 서 듯이 자연 속에 흐르는 핏줄이 말라 버리면 우리의 피도 마르는 법. 인과를 배우는 우리에게는 더욱 절실한 가르침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우리의 삶은 자연과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다. 우리는 자연에 대해 너무 무관심하게 살아왔다. 자연을 이해하는데 좀 더 과학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자연환경이 우리와 어떻게 관련 맺고, 변화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자연 속에 살면서도 실제로 자연을 한 번도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다. 흐르는 저 강이, 한 포기의 식물이, 나무가, 숲이 우리와 어떤 인연을 맺고, 우리 삶과 얼마나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에 대해서 마음 깊이 느끼고 생각해 보지 않았다.

우리는 불법을 배우는 학인으로서 자연을 좀 더 풍부하게 안아 우리의 세계관을 넓혀 자연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연의 소리에 조금 더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오늘날에 당면한 환경문제들 …. 결코 나와 무관한 일들이 아니다. 나를 비우고 자연을 느낀다면 내면의 자유가 더 풍요롭고 강하고 안정적이게 될 것이다. 자연은 부처님의 진신(眞身)이다. 우리는 자연을 바라보며 부처님의 설법을 듣듯 수많은 배움의 소리를 듣는다.

바람냄새, 샘물소리 하나에, 코끝 가득 밀려오는 향기에 계절의 흐름을 알 듯 그렇게 여실히 부처님의 무진법문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수행자로 거듭나길 간절히 발원해 본다.

▼회룡포 마을 - 뽕뽕다리

외람되이 붓을 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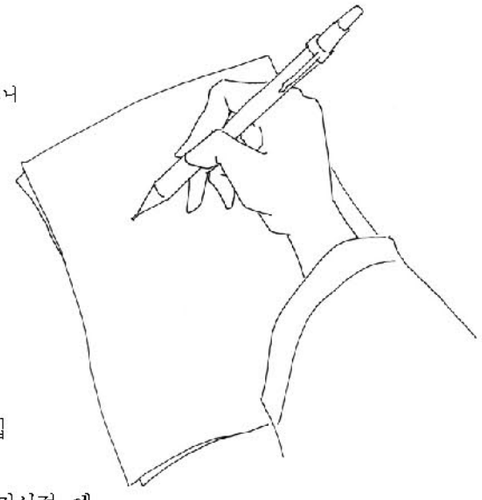
덕 현 / 사미니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몇 번의 기회가 온다고 한다. 출가 사문이 된 것은 나에게 있어 가장 큰 기회였던 것 같다. 그 가운데서 강원에서의 새로운 생활은 낯선 스님들과의 만남과 엄격하고 숨 막히는 듯한 일정으로 나 자신을 코너로 몰아갔다. 힘들다는 치문 첫 철을 그렇게 정신없이 보내고 있었다.

검게 물들일 치(緇) 문 문(門), 일명 중물 들이기. 치문 수업도 시작되었다. 치문반 강당(講堂)인 회성당(會星堂)은 내가 바쁜 일정 속에서 숨고르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공부는 이미 마음에서 떠난 지 오래였지만 적은 인원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 강사스님은 우리보다도 더 빨리 우리들을 파악하셨다. 얼마나 눈에 잘 띄는지 도저히 딴 짓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좌충우돌하는 생활을 하다가 가만히 앉아 수업을 듣노라면 눈꺼풀이 얼마나 무겁던지 나도 모르게 꿈속을 헤맨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럴때면 강사스님의 예리한 눈을 피할 수가 없었으니 조금이라도 수마에 넘어가려고 하면 바로 호명되고, 쏟아지는 질문공세는 만만치 않았다. 매일 전날 배운 부분을 외워 강을 바쳐야 했는데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될 때까지 시키셨고 그래도 안 되면 따로 부르시기도 했다. 난자 시험의 경우는 점수가 좋지 않으면 재시험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기에 반 스님들은 익혀야 될 습의와 인수인계 속에서도 틈나는 대로 난자와 행상을 찾아야 했다. 틈틈이 주머니 속의 쪽지를 보고, 손바닥 할 것 없이 난자와 암송 할 부분을 적어 다니며 앉으나 서나 외우곤 했다. 이제 와서 보니 그것은 치문 첫 철, 우리를 잡아주는 중심축이었다.

하지만 간경시간에는 술술 해석되던 문장도 막상 혼자서 읽다 보면 이해하기 어렵고 외워지질 않았다. 강사스님과 수업한 내용을 정리한 노트를 다시 보고 끊임없이 읽고 외우고 곱씹다 보면 간경시간에 놓쳤던 부분들이 어느새 내게로 한 걸음 다가와 있곤 했다. 또 어떤 때는 글쓴이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구구절절 가슴에 와 닿는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僭越秉筆하야 略爲箋釋하고 行住必俱하야 稽檢備忘하노니 祇堪自悅이요 不可持贈他人也니라

외람되이 붓을 들어 대략 주석한 것이니 오가거나 지내면서 반드시 함께하여 머리를 조아려 살펴보며 잊을 것에 대비하노니 다만 스스로 즐길 뿐이지 가져다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는 없는 것이다.

성총스님이 치문경훈에 손수 주석을 달고 앉으나 서나 지니고 다니면서 생각하고 검토하며 스스로 느끼셨을 희열…. 스님의 그 모습에 철없던 나의 행자시절이 떠오르자 나도 모르게 입가에 엷은 미소가 번졌다.

아무것도 모르고 출가를 감행한데다가 외울 것이 많았던 행자시절.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 등을 외워야 한다고 해서 앵무새처럼 무조건 외우긴 했는데 뜻을 몰라 답답한 마음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다. 행자생활이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던 어느 날, 그동안 생각만 해 왔던 염불 구절의 뜻을 새겨보자고 마음을 먹고 자전과 불교사전을 뒤지기 시작했다. 반야심경과 이산연선사 발원문 등을 해석해 나가면서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도 없는 수준이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다. 그리고 내가 공부한 대로 뜻을 음미하며 예불을 모셨을 때, 그 뿌듯함과 행복한 마음은 뭐라 말로 표현하기 힘든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사형스님이 반야심경 강의 테이프를 주면서 한 번 들어보라고 했다. 테이프를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깊고 심오한 뜻이 있는데 난 겨우 글자 해석에 급급해 하면서도 얼마나 뿌듯해하고 행복해했던지…. 그 생각을 하니 정말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부끄러웠다.

무지했기에 가능했고 남에게 보일 수는 없었지만 행복했던 시간들이었다. 비록 왜곡되게 뜻풀이를 하고 마음만 앞서 심오한 뜻은 흘려버렸지만 이로써 천 리 길의 한 걸음을 떼지 않았나 싶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 그것이 경전 안에서건 생활하는데 있어서건 뜻에서 어긋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쉽게 살아가고 있는 치문생활도 내 안의 갈등으로 인해 스스로가 힘든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나' 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데도 나는 항상 '나' 라는 데 묶여서 모든 것을 나의 기준으로 보고, 판단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니 이보다 어리석은 일이 어디에 또 있을까?

사교입선(捨敎入禪)이라는 말에 또 다시 묶여서 경전 보기를 소홀히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경전은 부처님의 말씀을 문자로 옮겨 놓은 것이고 그 말씀은 곧 부처님의 마음이다. 우리들이 찾고자 하는 부처님과 똑같은 마음, 그것을 찾아가는 길에 더없이 좋은 지도가 바로 경전인 것이다.

나에게 주어진 이 좋은 기회, 더군다나 운문사에서 만나는 고구정녕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걸림 없이 새겨서 부처님의 말씀에 담긴 깊은 뜻을 조금이라도 담아내는 수행자가 되고자 한다. 설령 다른 이에게 드러내 보일만한 것은 아닐지라도 그것이 내 마음 수행과 앞으로의 길에 있어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렇게 내 마음을 마음으로 바라보는 연습에 조금도 게으름이 없길 발원해 본다.

지금, 법고 치러 갑니다!

능 재 / 사집과

고요한 새벽의 어둠을 가르며 법당으로 향한다. 새까만 하늘 가운데에 하얀 얼굴을 내민 달, 그리고 그 달을 둘러 싼 채 총총히 빛나는 작은 별들과 함께 걷는다. 시원한 새벽바람을 맞으며 불이문(不二門)을 지나면 저만치 떨어져 있는 종각에는 벌써 불빛이 환하다.

바로 그곳에 내 신심을 다시 일깨워 준 법고가 있다. 매일 한 치도 틀림없는 시각, 새벽 3시 25분. 둥… 둥… 둥… 마음을 울리는 법고소리가 온 도량에 울려 퍼지기 시작한다.

"법고소리를 들으면 마음에 일었던 잡상(雜想)을 잠재울 수 있다."

『법화경』에 나오는 구절이다. 새벽의 적막함을 모두 가르기라도 할 듯 위풍당당하게 울려 퍼지는 법고소리는 축생들을 향한 부처님의 법음이라고 한다. 사람들과 달리, 언어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할 수 없는 네 발 달린 온갖 짐승의 무리를 제도하기 위해서는 법고소리가, 날아다니는 날짐승과 모든 곤충의 안락함을 위해서는 운판소리가, 물속에 사는 생물의 구원을 위해서는 목어소리가 곧 부처님의 법음이 되고, 범종을 울리는 것은 지옥의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장엄한 법고의 울림은 번뇌를 제압하고 듣는 이의 신심을 저절로 우러나게 함으로써 부처님의 진리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하는 부처님 자비의 또 다른 표현이다. 나는 법고의 울림에 이런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강원에 와서 알게 되었다.

출가 전, 나들이 삼아 한번 가 본 어느 절에서 법고 치는 스님들의 뒷모습을 본 적이 있다. 그때 처음 들었던 법고소리는 이제껏 욕심대로 살아가는 일에만 급급했던 내 모습을 깨부수는 듯, 강한 느낌을 안겨주었다. 어떠한 말이나 글로는 표현도 하지 못하는 거대한 소리. 그 소리가 울려 퍼지는 광경을 한없이 넋 놓고 보고 있던 내가 출가 후 이곳 운문사에서 법고부 소임을 통해 직접 법고를 치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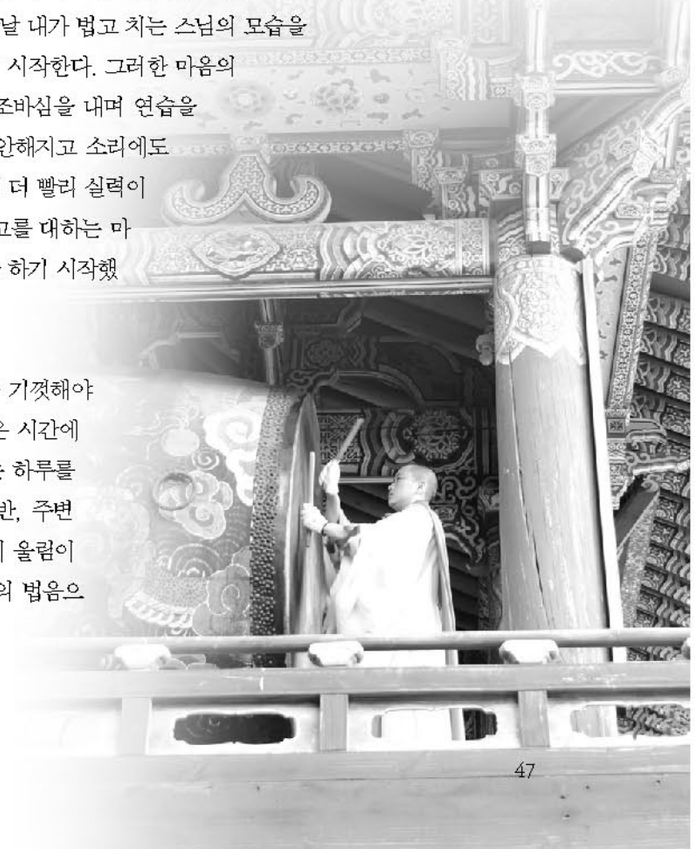
처음 법고와 만나던 날, 설렘과 기대감 그리고 긴장감은 내 가슴을 무척 벅차게 했다. 한 번이라도 더 법고를 쳐 보려고 반 스님들의 자리를 대신하기도 하고, 쉬는 날에는 법고 앞에서 온몸에 힘이 다 빠질 때까지 신나게 연습하기도 했다. 덕분에 손에는 굳은살이 생겼고, 팔 힘으로만 세게 치다보니 온 몸이 쑤셔오고 힘이 들었다. 하지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불 꺼진 이부자리에서도 캄캄한 허공에 법고의 모습을 그리고 연습을 하다 잠이 들기도 했다.

그때의 내 화두는 '어떻게 하면 팔에 힘을 빼고 손목의 스냅만으로 법고를 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멋있어 보이고, 더 좋은 소리가 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예불에 앞서 법고를 치고 내려오는 나를 향해 어떤 보살님이 정성스레 합장을 하며 "스님의 법고 치는 소리에 신심이 절로 생깁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붉어지며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그저 멋있어 보이기를 바라고 듣기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 연습했던 내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나의 법고소리에는 잘 치고 싶은 욕심만 있을 뿐 신심과 정성이 부족했다. '이 소리를 듣고 모든 중생이 해탈하기를' 이렇듯 발원했던 마음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법고 앞에 선 나의 마음에는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보다 내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늦게나마 깨닫게 된 것이다.

법고소리가 시작되면 삼삼오오 종각 앞으로 모여드는 사람들. 그들 모두가 자신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불심을 깨우고 돌아가기를 바라며, 지난날 내가 법고 치는 스님의 모습을 봤을 때의 신심어린 마음으로 한 박자씩 치기 시작한다. 그러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수록 마음과 소리가 일치되어 조바심을 내며 연습을 하던 때보다 법고를 치는 내 자신이 훨씬 편안해지고 소리에도 안정감이 생기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오히려 더 빨리 실력이 늘어나는 것도 알 수 있었다. 그 후, 나는 법고를 대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울력도 하며 강원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나는 오늘도 법고를 치러 간다. 하루 중 기껏해야 10여 분에 지나지 않는 울림. 하지만 그 짧은 시간에 번갈아 사는 소임을 통해 내가 수행하고 있는 하루를 되돌아본다. 내가 치는 법고소리에 나와 도반, 주변 사람들 모두가 신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울림이 온 산천에 두루한 생명들에게 청정한 부처님의 법음으로 전해지기를 간절하게 발원하면서….



日日是好日

편집부

운문선사가 어느 날 대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15일 이전의 일은 너희들에게 묻지 않겠다. 15일 이후의 일에 대해서 한마디 일러 보아라."
한번 지나가버린 과거사는 묻지 않을 테니 그 대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말일 것이다.
대중이 대답이 없자 운문선사는 이윽고 스스로 답하여 말하였다.
"日日是好日 - 날마다 좋은 날이다."

하루 세 끼 먹고 자는 일상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시들한 날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고 좋은 날이라는 뜻이다.

하루는 수많은 시간과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24시간, 1440분, 86400초……. 그리고 내가 의식하거나 의식하지 못하는 크고 작은 공간, 공간들. 이 안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진을 찍으며 각자의 하루를 만들어 간다.

초기불교 아비담마에서는 외부의 신호가 한 번 접수됐을 때 마음은 그 한 번의 신호를 대상으로 최대 17번 일어났다가 사라진다고 말한다. 외부 신호 한 번의 시간은 눈 깜짝하는 시간보다 수십 배 짧다. 거의 극미 순간이다. 이런 짧은 순간에도 마음은, 그것도 서로 다른 마음이 최대 17번까지 일어났다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것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저 깊은 곳의 아뢰야식에 저장될 것이며 또 다른 것은 의식 속에 자리 잡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하루라는 시공간 속에서 무수한 마음과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다. 탐 · 진 · 치로 말미암은 희 · 노 · 애 · 락이 다양한 장르의 이야기가 되어 수없이 생멸을 거듭하면서.

한 편, 만화 한 장면을 만드는데 1초당 열다섯 장에서 스물네 장 정도의 프레임이 필요하다고 한다. 인간의 눈은 24프레임 이상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한데, 어쨌거나 초당 15프레임이니까 20분짜리 애니메이션 한편이면 15장×1200초(20분)=18000프레임(장) 정도 들어가게 된다. 단순히 한편에만 이렇게 되고, 이것이 장시간의 애니메이션 영화가 된다면 그 필요한 프레임 수는 상당해진다.

그렇다면 하루 분량의 내 일상을 만화나 영화 속의 프레임 수로 계산해 본다면 얼마나 많은 양의 사진이 필요한 것일까? 또 그 안에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작용은 얼마나 될까?

찰나 生, 찰나 滅하는 우리의 마음은 애니메이션 1초 동안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많은 프레임을 필요로 할 것이다. 다만 이같이 찰나 생멸하는 마음작용은 우리가 거의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지나가기 때문에 모두를 기억할 수 없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런 사진이 연결되어 우리의 하루를 만들고 한 달, 일 년이 되어 마침내 온전한 나의 삶이 된다는 것이다.

밤이 가고 아침이 오면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는 것을 의식한다. 그리고 그날 할 일을 머리에 그린다. 하나의 장면을 분명히 인식하기도 하고, 다음 장면을 미리 떠올려 보기도 하면서 날마다 또 다른 날을 만들어 간다. 이렇게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사진을 찍고 영사기에 비춰 보기를 반복한다. 그 안에서 생멸하는 마음에 따라 좋은 날, 우울한 날이라 말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강원생활도 만들어지고 60평생, 80평생이니 하는 인생사가 전개된다.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떤 마음으로 살았느냐에 따라 헛된 시간이었다고 할 수도 있고, 보람된 시간이었다고 할 수도 있다. 사는 동안 어떤 사진을 찍느냐에 따라 내 인생의 이야기에 내가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남이 주인공의 자리를 차지하기도 한다. 바깥경계를 향하고 있는 내 의식과 마음이 다른 사람들의 모습만 찍어대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느라고 분주하다면 나의 하루엔 내가 없다. 온통 다른 사람들을 위한 시비분별 뿐. 다른 사람들에게 향해 있는 내 마음의 카메라를 내 안으로 돌려 나를 찍어보자. 내 행동, 말투, 눈빛, 표정, 마음까지 뭐든지 다. 내가 찍는 내 삶의 사진 속에 무엇을 담아낼지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니까.

日日是好日, 하루하루가 다 좋고 소중한 날이다.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서 날마다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행복이 어디 먼 곳의 무지개처럼 따로 있는 것이 아니듯이 좋은 날도 그렇다.

한 해 절반의 날들이 지났다. 남은 절반에 대해서 나는 뭐라 말할 수 있을까? 그 옛날 운문선사와 대중의 마음자리를 들여다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날마다 좋은 날'이고, '삶마다 좋은 삶'이 되기를 바란다. 나의 오늘을 축원하며…….

▲故노무현 前 대통령 국민장 분향소

▲감자밭 풀매기

▲제1회 승가대학 어린이포교 교육

▲비구니 수행 전통에 대한 포럼

▲포살

운·문·소·식

- 5월 15일 여름철 개학공사가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5월 16일 과천에서 열린 '사람 · 생명 · 평화의 길'에 학감스님과 화엄반 스님들이 오체투지순례단과 함께 하였습니다.
- 5월 22일 컴퓨터를 시작으로 맹자, 서예, 꽃꽂이, 사군자, 일어, 영어, 염불, 요가, 피아노 등 외전이 시작되었습니다.
- 5월 28일 故 노무현 前 대통령 국민장 봉하마을 분향소에 화엄반 스님들이 다녀왔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5월 29일~30일 단오날을 맞아 대중 스님들의 산행이 있었습니다.
- 6월 3일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가는 길' 이라는 주제로 이병욱 환경부 차관의 특강이 시청각실에서 있었습니다.
- 6월 6일 '행불(行佛)하세요' 라는 주제로 월호스님의 특강이 시청각실에서 있었습니다.
- 6월 6일~7일 제47차 전국 어린이지도자연수회가 속리산 유스호스텔에서 '나누는 기쁨 하나 되는 여름불교학교'라는 주제로 열려 교화부 스님 28명이 1박 2일간 다녀왔습니다.
- 6월 10일 감자밭 풀매기 대중울력이 있었습니다.
- 6월 11일 울산불교방송 1주년 기념 콘서트에 학감스님과 화엄반 스님들이 다녀왔습니다.
- 6월 12일~13일 마가스님의 '자비명상' 특강이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6월 13일 여름철 첫 自恣가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6월 15일 사단법인 동련이 주관한 '제1회 승가대학 어린이포교 교육' 이 시청각실에서 있었습니다.
- 6월 20일 윤영해 교수님의 '비교종교학 I' 특강이 시청각실에서 있었습니다.
- 6월 24일 대한불교조계종 전국 비구니회에서 개최한 '제2차 한국 비구니 수행 전통에 대한 포럼' 이 법룡사 전국 비구니회관 시청각실에서 열려 어른스님, 율원생스님, 화엄반스님이 다녀왔습니다.
- 6월 26일 여름철 포살이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6월 27일 윤영해 교수님의 '비교종교학 II' 특강이 시청각실에서 있었고, 감자 캐기 대중울력이 있었습니다.
- 7월 2일 통도사에서 열린 '사찰경내지 국립공원서 제외' 종단 의지 결의대회에 대중 스님들이 다녀왔습니다.
- 7월 10일 학인 스님들의 차례법문이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7월 18일 '뇌와 과학'이라는 주제로 박문호 박사님의 특강이 시청각실에서 있었습니다
- 7월 24일~26일 '나눌수록 넘쳐나는 자비의 샘물'이라는 주제로 제31회 어린이 여름불교학교가 열릴 예정입니다.
- 7월 28일 41일간 여름방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도와주신 분

· 청암스님 · 선의스님 · 당경스님 · 형민스님 · 수산화불자님
· 구윤회불자님 · 김창배불자님 · 이영환불자님 · 권혁창불자님 · 황인희불자님
· 이기태불자님 · 실상월불자님 · 배종옥불자님 · 최희영불자님 · 조명순불자님
· 서상도불자님 · 김형균불자님 · 공평약국

※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雲門』誌 발간에 도움을 주실 분은 아래의 온라인 구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체국 701839-01-000335, 예금주 : 운문편집실)
* 주소가 변경된 분은 편집실로 연락 주십시오 ☎ 054) 372-8834 (FAX 겸용)

하늘바다 / 2007 / 120 x 75cm / 영담
쪽빛물색 닥종이 위에 흰 닥섬유를 자연스럽게 얹어서 파도를 표현한 작품

하늘인가 구름인가
바다인가 파도인가
광활한 허공
청량한 마음

영담스님은 우리의 전통종이인 한지를 30년째 연구 · 재현하고 있으며, 직접 만든 종이로 천연염색과 자연소재로 미술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운문승가대학 26회 졸업생으로 현재 청도 보갑사에 주석하며 영담한지미술관 관장으로 있다.

표지사진 / 비 개인 후, 북대암

雲門僧伽大學

714-883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1789번지 雲門寺
편집부 (054)370-7139 / 종무소 (054)370-7100 / http://www.unmunsa.or.kr

〔운문·계간〕 여름호 · 통권 제109호 · 2009년 7월 20일 발행 · 등록 1995년 3월 29일 · 등록번호 경북 바-01008
발행처 · 운문승가대학 / 발행인 · 명성(전임호) / 고문 · 일진 / 편집 · 운문승가대학 문화부
편집장 · 혜준 / 편집위원 · 현산, 종호, 혜오, 승안, 석원, 능재, 민석, 명현, 능오, 만경 / 사진 · 유덕 / 삽화 · 무처, 아원
컴퓨터 · 선준 / 편집디자인 · ㈜미디어 (02)2285-3366